



2019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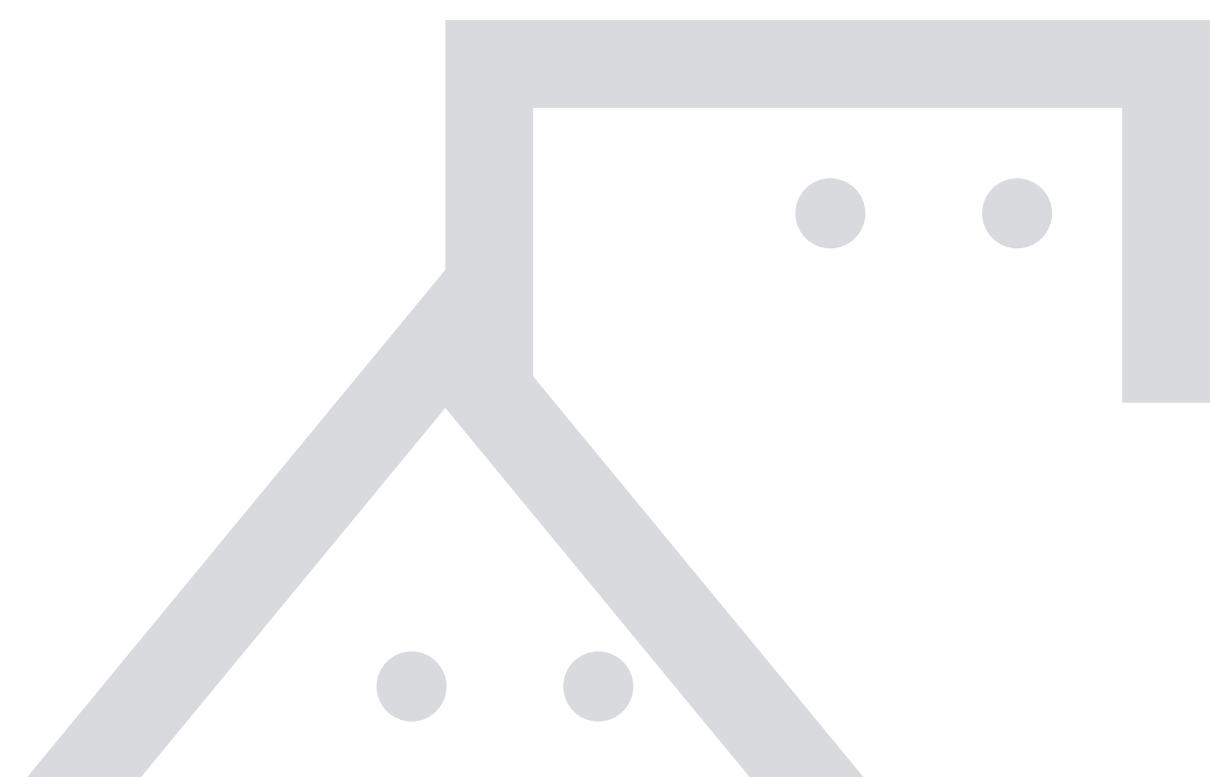
2019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2019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2019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목차

Contents

1. 행사 개괄

01. 개최배경	06
02. 행사개요	08
03. 행사주제 및 티	09
04. 프로그램별 행사 일정	10

2. 추진 과정 및 성과

01. 추진체계	16
02. 추진공정표	17
03. 추진 성과 및 개선 과제	18

3. 프로그램별 추진 결과

01. 사전 프로그램	50
1.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51
2. 박물관주간 교육박람회	52
02. 공식 프로그램	54
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56
2.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II	74
3. 문화예술교육포럼	84
4. 해외전문가 워크숍	90
5. 유관학회 세미나	94
0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	108
04. 지역별 프로그램	112

4. 대외홍보

01. 언론홍보	120
02. 온라인홍보	128
03. 오프라인홍보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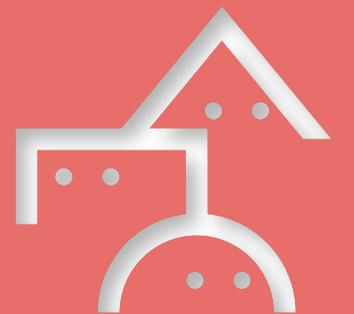
5. 별첨

01. 설문조사 결과	148
02. 참여하신 분들	156



1. 행사 개괄

- 01. 개최배경
- 02. 행사개요
- 03. 행사주제 및 티
- 04. 프로그램별 행사 일정



01 개최배경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성공개최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아젠다: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를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 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아젠다'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개최한 5월 넷째 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주도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이 선포된 이래 매년 5월 넷째 주, 각 국가별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이 함께 펼쳐진다.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올해 8회를 맞이하는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는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가 모여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포럼, 해외전문가 워크숍, 유관학회 세미나 등 다채로운 교류, 학습, 경험의 장이 펼쳐졌다.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2011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은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성공 개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11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천 개의 시간, 천 개의 삶'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에서 컨퍼런스, 워크숍, 거리공연 등 10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2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2012년 5월 2일부터 26일까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를 열었다. 또한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유네스코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2013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2013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를 열었다.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387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2014 제3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기념하여 2014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문화역서울 284를 거점으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 총 303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딛고 일상을 다시 일으키는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며 다독이는 소소한 축제의 장이 되어 국민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2015 제4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이 개최된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경상권)을 중심으로 개최하여 지역과 지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2015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을 거점으로 부산 원도심(중구)을 비롯해 해운대에 이르기까지 지역 전반을 아울러 경상권은 물론 기타 지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까지 이루어 냈다.

2016 제5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6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상암동 디지털시티 일대에서 정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을 도모했다. 또한 다양한 층위의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행사의 지속성 및 인지도를 강화했다.

2017 제6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6번째 맞이하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는 동대문 디지털플라자(DDP)와 블루스퀘어 일대에서 2017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었다.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 예비인력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이 강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참여를 이끌었다.

2018 제7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제7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는 2018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교육의 재발견'을 주제로 서울 문화비축기지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변화하는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과 새로운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문화예술교육 해커톤, 유관학회 세미나 등 5일 간 다채로운 교류·학습·경험의 장을 열었다.

02 행사개요

2019 제8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명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일시	2019.5.20(월)-5.25(토)
장소	서울(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전국 문화기반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week.kr



03 행사주제 및 T.I

행사주제 2019 제8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슬로건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
 나섰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올해 8회를 맞이하는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는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가 모여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포럼, 해외전문가 워크숍, 유관학회 세미나 등 다채로운 교류, 학습, 경험의 장을 펼칩니다.

핵심가치 미래세대, 매개자, 가족, 공간, 환경, 변화, 정책, 안전, 소통, 타자성, 확장

추진방향

영유아,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 조명

지식 공유,
담론 형성의 장 마련

지역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Event Identity



04 프로그램별 행사일정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5.22(수)

사회: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		
축사	14:00~14:05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규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특별강연	14:05~14:30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특별공연	14:30~14:45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모더레이터: 남인우 극단 복새통 예술감독		
발제	14:50~16:10	최영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영유아를 만나는 예술가와 예술 교육가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까?
		로베르토 프라베티 라 바라카 극단 예술감독 연극과 아주 어린 사람들
		아쿠아 코아테-테이트 울프트랩 부대표 예술: 균형 있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의 멋진 친구
		마이크 더튼 톤코하우스 예술감독 예술교육으로 떠나는 여행
라운드 토크	16:10~16:40	모더레이터와 발제자 전원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I

5.23(목)

구분	시간	내용
여는 마당	14:00~14:10	마중 낭독+음악+영상 여는 이 김중길 경기도미술관 수석큐레이터
제 1 법석	14:10~14:55	이꿈 말 루시 힐 디 아크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아티스트 현실화 이론-디 아크 어린이문화센터의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마당 말 모두 함께
제 2 법석	14:55~15:40	이꿈 말 예 슈팡 싱가포르국립미술관 교육부 부국장 어린이가 예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당 말 모두 함께
사이 마당	15:40~15:50	심 음료+음악+영상
제 3 법석	15:50~16:35	이꿈 말 캣 박스 테이트 미술관 테이트 키즈 프로듀서 놀이 만들며 탐구하기: 테이트 키즈의 온라인 예술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법 마당 말 모두 함께
제 4 법석	16:35~17:20	이꿈 말 황지영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학예사 참여하는 미술관: 어린이 · 가족이 함께하는 열린 공간의 예술 경험 마당 말 모두 함께
닫는 마당	17:20~17:30	배웅 음악+영상

문화예술교육포럼

5.24(금)

시간	구분	연사	내용
15:00-15:20	개별발표	신혜미 C Program 매니저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의 의미와 제3의 공간으로서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을 소개한다.
15:20-15:40		김이삭 헬로우뮤지엄 관장	각 기관별로 아이들에게 열어 있는 제 3의 공간으로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공간을 운영하는 철학과 방식을 공유한다.
15:40-16:00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16:00-16:20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	
16:20-17:00	대담	C Program 신혜미 매니저 및 3명 연사	2019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을 늘려 가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이야기한다.

해외전문가 워크숍

5.20(월) -
5.23(목)

가족 워크숍				
일시		프로그램명	초청전문가	장소
5.20(월)	10:30-12:30	땅으로! 바다로! 예술의 즐거움	울프트랩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14:00-16:00			일산 EBS 사육
5.21(화)	10:30-12:30	14:00-16:00		
어린이 워크숍				
일시		프로그램명	초청전문가	장소
5.20(월)	09:00-10:15	호기심과 상상의 세계여행	톤코하우스	톤코하우스 특별전시회 갤러리
	10:30-11:45			
5.21(화)	10:30-11:45	13:00-14:15		
부모 워크숍				
일시		프로그램명	초청전문가	장소
5.23(목)	11:00-13:00	어린이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예술, 상상력, 그리고 몸	로베르토 프라베티	일산 EBS 사육
	14:00-15:00			

04 프로그램별 행사일정

유관학회 세미나

5.21(화) -
5.25(토)

일시	학회명	주제	장소
5.21(화)	10:30-14:30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영유아의 인성교육과 심리발달을 위한 무용/동작 중심 예술 교육의 접근방향 및 적용사례	서울 성수동 cow&dog
	17:00-20:00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영·유아와 아동들을 위한 피아노 교육의 문제와 방향	중앙대학교 법학관 303호
5.23(목)	14:00-17:20	(사)한국영화교육학회 어린이 영화교육 활성화 방안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 세미나실
5.24(금)	19:00-21:00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연주와 함께하는 음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주와 이야기 분석을 통한 음악교육의 대중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오페라실
5.25(토)	10:00-12:00	한국무용과학회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	대화로 예술가의집
	11:00-14:00	한국연기예술학회 21세기 예술과 사회의 연계성 연구	서울연극센터 2층 아카데미홀
	13:30-17:40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논하다	한예중 대학로 캠퍼스 강당
	13:00-17:00	한국교육연극학회 연극예술로 세상과 호흡하기 - 예술이 인간을 기른다: 발달론의 예술적 접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 다목적실
	14:00-18:00	한국연극교육학회 연극예술의 창조과정과 방법론을 논문화하기 위한 형식개발	중앙대학교 공연예술원 401호
	10:00-15:00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 점검 탐구, 의견제안	동국대학교 문화관 2층 PBL실
	11:00-14:00	한국예술교육학회 예술교육의 현황과 전망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L501
	14:00-17:00	한국음악교육학회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L501
	13:30-18:00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공학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203호

전문인력 연수

5.23(목) -
5.25(토)

일시	지역	프로그램명	장소	
5.23(목)	10:00-18:00	서울	뮤지엄, 문화예술교육으로 다가가기	국립중앙박물관
5.23(목)~5.24(금)	10:00-17:00	울산	유아기 예술교육의 마중물	아르코 공연예술연습센터
5.24(금)	10:00-17:00	부산	아이들의 예술 경험을 위한 시각예술 창작 워크숍	부산 한성1918
5.25(토)	10:00-17:00	인천	눈으로 말해요! 아동극과 영유아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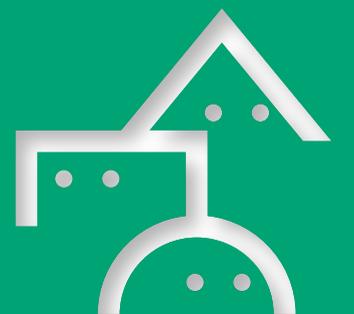
지역별 프로그램

5.23(목) -
5.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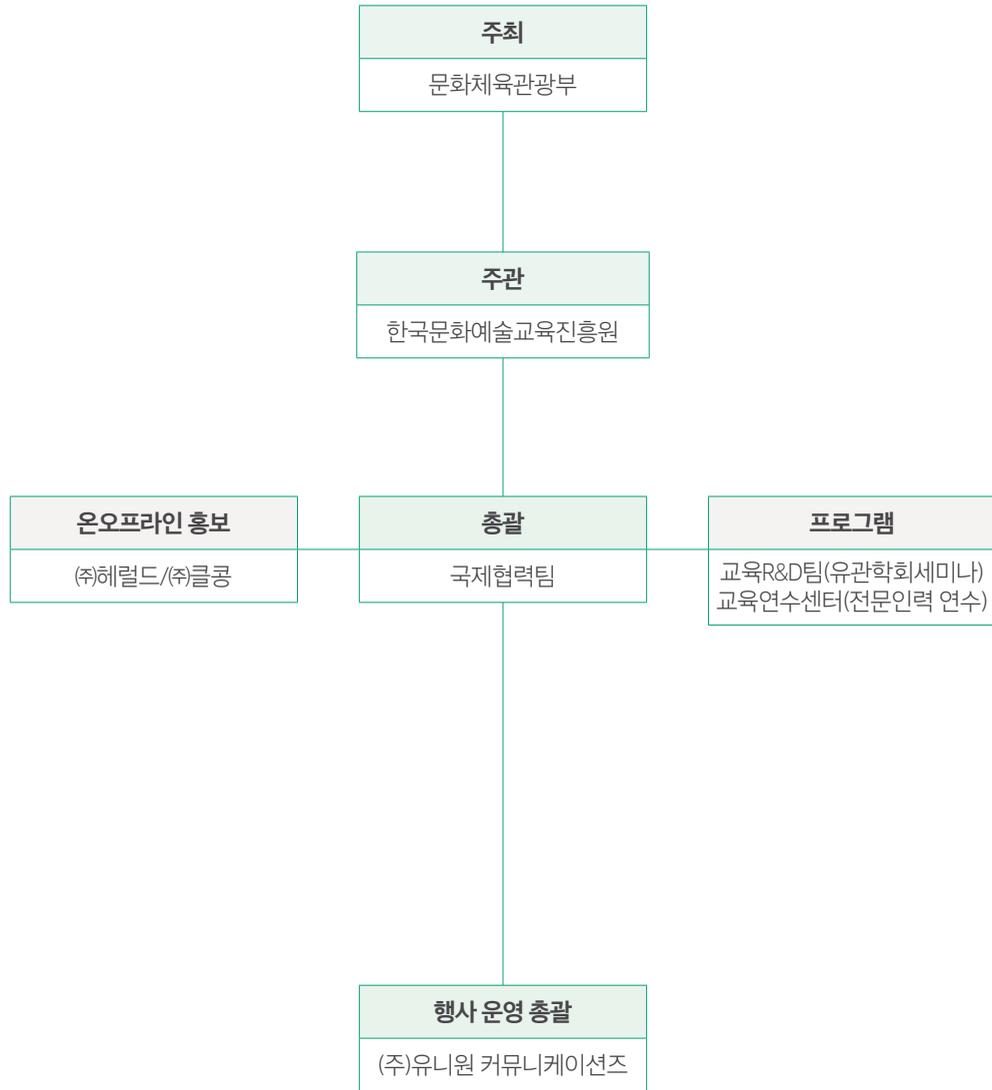
일시	지역	프로그램명	장소	
5.22(수)	14:00-18:00	인천	인천 평생교육x문화예술교육 토론회 <전환의 시간, 미래를 위한 교육>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5.23(목)	13:30-17:00	울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국제세미나	울산광역시의회 대강당
5.25(토)	10:00-16:00	경기	문화예술교육 축제 <뭐든지 예술놀이터>	경기도박물관 앞마당
5.25(토)	11:00-17:00	인천	문화예술교육 축제<꿀벌의 모험>	중앙공원 조각원지구
5.25(토)	11:00-17:00	세종	문화예술교육 축제 <오감소풍>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
5.26(일)	11:00-16:00	제주	문화예술교육 축제 <노는게 예술이네>	산지천 갤러리 일대 및 산지물공원

2. 추진 과정 및 성과

01. 추진체계
02. 추진공정표
03. 추진 성과 및 개선 과제



01 추진체계



02 추진공정표

추진내용	3월					4월					5월					6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행사 추진 계획 수립 및 보고																				
계약 등 사전 행정처리																				
착수 보고																				
전체 행사 진행 일정 확정																				
행사 진행 장소 대관																				
초청연사 확정 및 초청																				
행사 슬로건 개발 및 비 디자인																				
기획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																				
프로그램 참여팀 모집 및 사전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홍보물 디자인 공유 및 제작지원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주요 내빈 초청장 발송 및 참석확인																				
언론매체 홍보																				
행사 운영계획 수립 및 점검																				
초청인사 관리																				
행사 공간 조성 및 설치																				
행사 개최																				
행사 개최 결과 보고 및 정산																				

03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주요 프로그램 별 참가자수

일자	구분	세부 프로그램/주제/학회명	참가자수
3월-5월	사전프로그램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69명
5.18(토)-5.19(일)		박물관주간 교육박람회	41,894명
5.22(수)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처음의 시간: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 대하여	405명
5.23(목)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I	끝없는 시작: 예술로 만나는 탐구자들의 이야기	332명
5.24(금)	문화예술교육포럼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208명
5.20(월)-5.21(화)	해외전문가 워크숍	가족 워크숍: 땅으로 바다로! 예술의 즐거움	98명
		어린이 워크숍: 호기심과 상상의 세계여행	105명
5.23(목)		부모 워크숍: 어린이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예술, 상상력, 그리고 몸	35명

일자	구분	세부 프로그램/주제	참가자수
5.23(목)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	[서울] 뮤지엄, 문화예술교육으로 다가가기	84명
5.23(목)-5.24(금)		[울산] 유아기 예술교육의 마중물	19명
5.24(금)		[부산] 아이들의 예술 경험을 위한 시각예술 창작 워크숍	24명
5.25(토)		[인천] 눈으로 말해요! 아동극과 영유아	23명
5.22(수)	지역별 프로그램	[인천] 인천 평생교육x문화예술교육 토론회 <전환의 시간, 미래를 위한 교육>	77명
5.23(목)		[울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국제세미나	167명
5.25(토)		[인천] 문화예술교육 축제 <꿀벌의 모험>	500명
		[경기] 문화예술교육축제 <뫼든지 예술놀이터>	4,950명
		[세종] 문화예술교육축제 <오감소풍>	4,800명
5.26(일)		[제주] 문화예술교육축제 <노는게 예술이네>	1,200명

일자	구분	학회명	주제	참가자수
5.21(화)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영유아의 인성교육과 심리발달을 위한 무용/동작 신체 예술교육의 접근방향 및 적용사례	38명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영·유아와 아동들을 위한 피아노 교육의 문제와 방향	53명
5.23(목)		(사)한국영화교육학회	어린이 영화교육 활성화 방안	75명
5.24(금)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연주와 함께하는 음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주와 이야기분석을 통한 음악교육의 대중화	92명
5.25(토)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세미나	한국무용과학회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	57명
		한국연기예술학회	21세기 예술과 사회의 연계성 연구	35명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논하다	62명
		한국교육연극학회	연극 예술로 세상과 호흡하기 - 예술이 인간을 기른다 : 발달론의 예술적 접근 -	71명
		한국연극교육학회	연극예술의 창조과정과 방법론을 논문화하기 위한 형식 개발	98명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 점검, 탐구, 의견제안	31명
		한국예술교육학회	예술교육의 현황과 전망	59명
		한국음악교육학회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25명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음악 교육공학	53명



03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추진 성과

정책기조에 발맞춘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시사점 제공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발맞춰 문화예술교육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설정하고, 국내외 현장에서 활동하는 영유아·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의 교육관과 현장 사례를 심포지엄, 워크숍, 전문인력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각적으로 공유하여 국내 현장에 실질적인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전문가·매개자 중심의 지식공유, 담론형성의 장으로서의 행사 정체성 확립

- 영유아·어린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나누는 국제심포지엄 I, 나아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다루는 국제심포지엄 II 등 전문가·매개자의 지식공유 행사에 보다 기획을 집중하였음. 향후 주간행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첫 시도로, 참여자의 행사 내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였음 (참여자 전반적 만족도 4.4점(5점 척도))
- 심포지엄별 양일 간 개별 주제·연사 구성을 고려한 진행방식 차용, 양일 간 공간구성 등 색다른 접근을 시도하였음. 양일 간 심포지엄 참여자의 몰입도와 집중도가 높았으며 향후 주간행사의 정체성 확립에 의미 가짐

유관기관 및 지역센터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국립중앙박물관, EBS,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등 당해 주제 및 특정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특화된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박람회,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각 유관기관별 주요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행사별 적절한 타겟 대상 홍보 등, 보다 내실 있게 주간행사를 운영할 수 있었음
- 국제심포지엄 초청연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센터와 협력 하에 전문인력 연수를 협력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 및 홍보·현장 운영 등 다양한 세부 과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음

개선 과제

보다 효과적인 행사 운영과 성과 환류 방식 논의 필요

- 주간행사는 2018년부터 특정 주제를 필두로 그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다양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 중앙(진흥원)과 지역의 내용적 연계, 보다 많은 지역의 참여, 주제에 대한 광역적 논의 촉발 등 보다 효과적인 행사 개최 - 성과 환류에 대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함
- 해외의 주간행사 운영사례 등도 참고 가능 : 칠레 운영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의 경우 기본 행사방향, 슬로건, 주제를 담은 매뉴얼을 중앙에서 배포하고,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지역 기관·단체가 자유롭게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
-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공신력 강화 및 관심도 강화를 위해,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포되었음을 행사 안내, 홍보물, 홈페이지 등에 언급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세부 행사별 성격을 고려하여 한 공간에서 개최 효과성 등 논의 필요

- 전년도 주간행사의 경우 심포지엄·워크숍·포럼·세미나 등 대다수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 행사는 심포지엄 수용인원 확대, 접근성 강화를 고려하여 특정한 거점공간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개별 행사들을 운영하였음
- 유관학회 세미나 또한 각 학회별 운영이 용이한 일정과 공간에서 운영되었으나, 대다수 학회들이 전년도에 비해 타 행사 참관이 용이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제시. 심포지엄, 유관학회 세미나 등 참여 대상이 유사하고 내용 연계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행사장소 혹은 일시를 조율하여 한 공간에서 운영 등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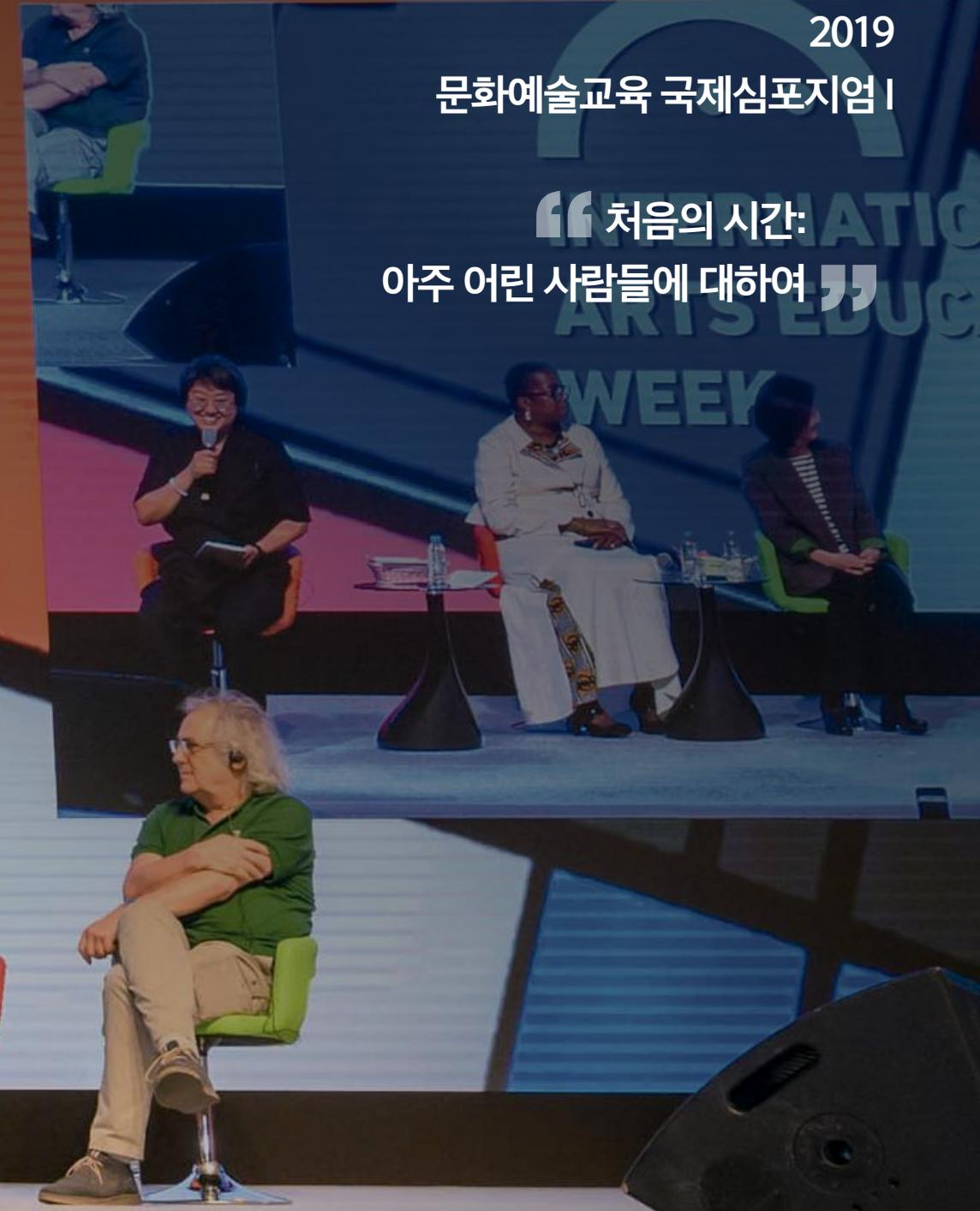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
나섰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2019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처음의 시간:
아주 어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한때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과 같이 성장했습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체험하느냐에 따라 우리사회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시절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풍부한 감수성과 창조적 영역을 키운 아이들이 만들어 나갈 미래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영유아,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은 생애 첫번째 마주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행사 동안 영유아,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뜻깊고 의미있는 만남과 대화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규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2019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How to pass your values on to your kids?

“우리가 아이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힘들 때 버텨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긍정적인 추억과 경험이
아이에게 내적인 힘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1. 보들보들 우리아가

작사 강지우 | 공동작곡 강지우 · 최새봄

보들보들 우리아가
주물주물 편안하지
할머니 생각나
토닥토닥 기분 좋아
따뜻한 우리아가
잘 자라 오요요요

보들보들 우리아가
주물주물 편안하지
할머니 생각나
토닥토닥 기분 좋아
따뜻한 우리아가
잘 자라 오요요요

2. 라봉라봉

작사 최미경 | 공동작곡 최미경 · 장한솔

유채꽃 향기를 싣고 날아온
지안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엄마의 입안이 사랑으로 가득차서
참 달콤한 웃음이나

대머리 지안이 아빠 바라기
엄마의 발가락 꼭 닮은 너의 발
따스하게 엄마를 안아주고 지켜주는
참 고마운 엄마 짝궁

라봉라봉 알라봉 한라봉
라봉라봉라봉 알라봉
라봉라봉 알라봉 한라봉
라봉라봉 알라봉

엄마가 이 노래 멈추지 않을게
지안이 이 노래 위에 사랑을 입어
엄마가 이 사랑 멈추지 않을게
지안이 이 사랑위에 행복을 입어

라봉라봉 알라봉 한라봉
라봉라봉라봉 알라봉
라봉라봉 알라봉 한라봉
라봉라봉라봉 알라봉

이 노래가 지안이 곁에서
위로가 되어 줄거야

3. 초코케익

작사 심유라 | 작곡 김혜성

은은한 달빛 아래
나란히 함께 누워
오늘 하루는 어땠니? 얘기해줘
이렇게 오늘 밤도
널 다시 만나 기뻐

때로는 저 별처럼
반짝이진 않아도
태양처럼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 잘 될거야

초코케익 초코케익
달콤한 초코케익
우리의 하루가 더 달콤하게
초코케익 초코케익
맛있는 초코케익
내일도 또 모레도
언제나 함께 해

때론 힘들고 때론 지쳐도
우린 알잖니 또 다시 웃을거란 걸
오늘도 엄마는 사랑하는 널 보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익을 만들거야

초코케익 초코케익
달콤한 초코케익
우리의 하루가 더 달콤하게
초코케익 초코케익
맛있는 초코케익
내일도 또 모레도
언제나 함께 해



영유아를 만나는 예술가와 예술 교육가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까?

Why artistic experience for Early Years?

“부모와 교사들의 협력없이
어린이를 위한 예술과 예술교육이
사회적으로 확장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문화적 지형 만들기'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인 함의로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공동체적 사회성 회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영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아동청소년극 전공 교수



연극과 아주 어린 사람들

The theatre and the very young

“모든 아이들에게는
예술과 연극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1개월 된 아기도, 한살이 된 아이도
인간이 되어가는 존재(Human becoming)가 아닌
인간(Human being)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로베르토 프라베티

극단 라바리카 예술감독 · 연극예술가

The theatre and the very young

Roberto Frabetti

Artistic Director & Theatre Artist

La Baracca-Teatro Testoni Ragazzi

실시간 Q&A

<https://arteweek2019.symflo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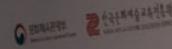
**예술: 균형있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의 멋진 친구**

**The Arts: A Great Equalizer to Support Children's
School Readiness and Success in Life**

“우리가 영유아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예술을 통한 긍정적인 영향이 곧
아이들의 미래 삶에 성공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예술통합학습은 집, 학교, 공동체에서
신체적, 사회적, 언어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쿠아 코야테-테이트
울프트랩 부대표 · 영유아기관 총괄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ARTS
Dance, Music
& Dr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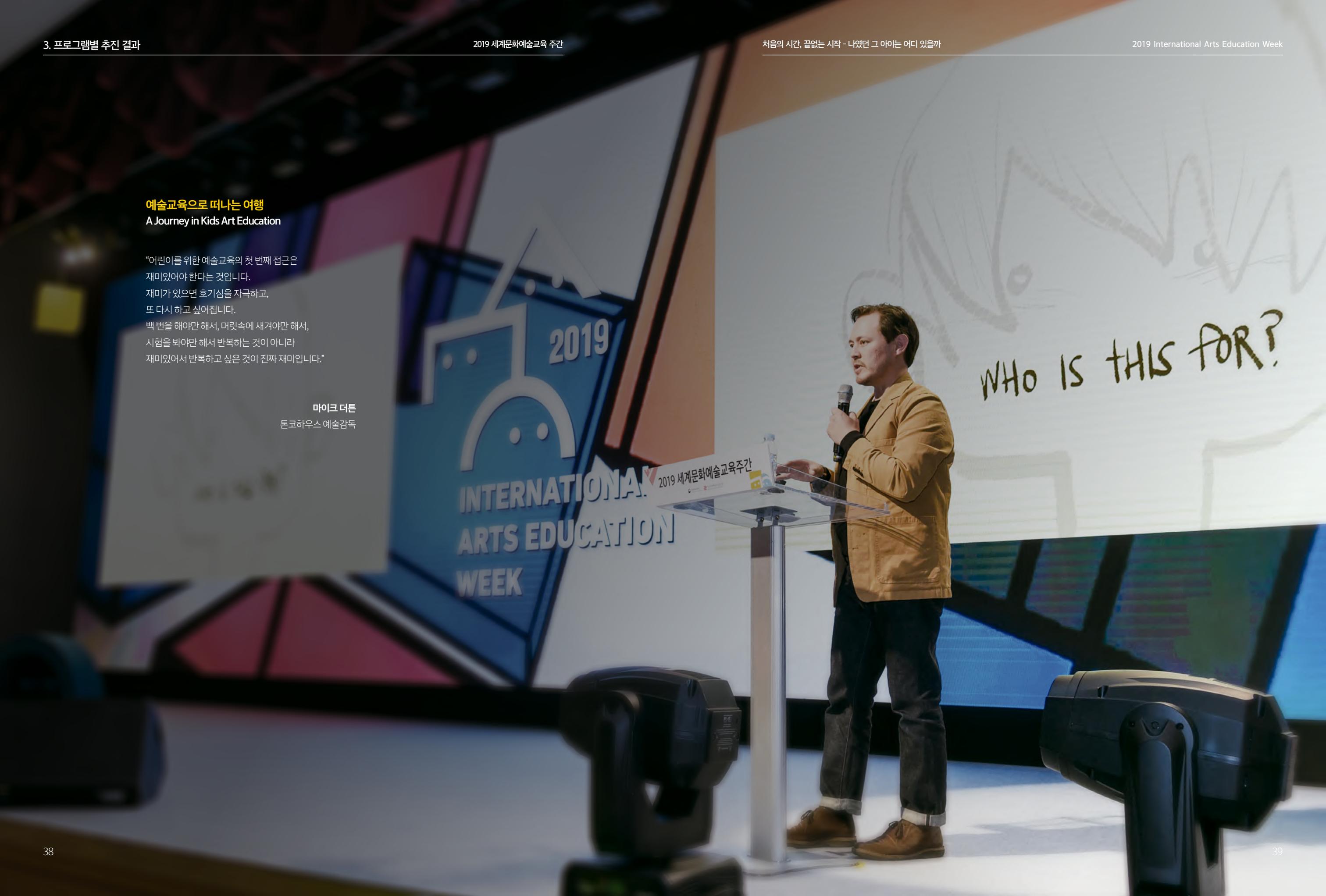
IN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예술교육으로 떠나는 여행
A Journey in Kids Art Education

“어린이를 위한 예술교육의 첫 번째 접근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으면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백 번을 해야만 해서, 머릿속에 새겨야만 해서, 시험을 봐야만 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어서 반복하고 싶은 것이 진짜 재미입니다.”

마이클 더튼
톤코하우스 예술감독



2019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II

“ 끝없는 시작:
예술로 만나는
탐구자들의 이야기 ”



현실화 이론
디아크 어린이문화센터의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Materialising Theory
An Early Years Artist Residency at
The Ark Children's Cultural Centre, Dublin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유아도 동등한 시민으로서
예술을 표현하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시 힐

디아크 어린이문화센터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아티스트



**어린이가 예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do children want to know about Art?

"왜 유명한 초상화 속 사람은 웃지 않나요?",
"이렇게 큰 그림이 어떻게 문을 통과할 수 있었죠?"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굉장히 색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린이가 예술에 대해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 슈광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교육부 부국장





**놀이 만들며 탐구하기:
테이트 키즈의 온라인 예술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법**

**Play, make and explore: How Tate Kids engages
kids with art online**

“아이들은 자신의 예술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표현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삶은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구분이 없는데요.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즐겁고 의미 있는 예술 플랫폼을 만들고
실제 삶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킷박스

테이트 미술관 테이트 키즈 프로듀서

**참여하는 미술관:
어린이·가족이 함께하는
열린 공간의 예술 경험**
Participatory museum: Arts experience for
Children and Families

“학습이나 배움이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동하는 미술관 경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예술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술교육의 촉진자로서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예술, 공동체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황지영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학예사



01 사전 프로그램

- 1.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 2. 박물관주간 교육박람회

01-1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카네기홀의 음악 프로그램 ‘뮤지컬 커넥션(Musical Connections)’ 일환인 ‘자장가 프로젝트(Lullaby Project)’는 예비엄마와 이제 막 태어난 아주 어린 아기의 부모를 위해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성장, 부모와 아이 간의 끈끈한 유대감 형성을 목적으로 전문 음악가들이 파트너가 되어 세상에 하나 뿐인 특별한 자장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엄마와 작곡가 간의 음악적 교류와 교감의 과정, 엄마만의 감성적, 개인적 성찰을 통해 작사-작곡 후 전문 녹음작업을 거친 음원은 사운드클라우드 카네기홀 채널에 업로드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뉴욕시와 미국전역, 여러 나라에서 지금까지 1,400곡이 넘는 자장가가 탄생하였고, 학교, 돌봄시설, 노숙자쉼터, 교정시설, 난민캠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음악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회참여음악가네트워크(SEM네트워크)와 협업하여 한국형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를 진행하였다. 워킹맘, 전업주부, 육아휴직 중인 아빠, 미혼모, 필리핀에서 온 엄마 등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다양한 부모와 아티스트가 만나 총 9개의 곡이 탄생했다. 이후 지인과 가족들을 초대하여 작은음악회를 열어 자장가를 소개하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녹음하는 과정도 거쳤다. 또한 국제심포지엄에서의 특별공연을 통해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 개막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곡가는 "예술의 가치와 역할을 확장해가는 보람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으며, 참여 부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되었다.", "육아에 지쳐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던 와중 아이를 위한 노래를 만들러 왔다가 오히려 내가 위로 받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프로그램 참여의 의미를 전하였다.



01-2 박물관주간 교육박람회

박물관주간 교육박람회

일시 2019.5.18(토)-5.19(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매해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하는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연계하여, 전국 40여개 국·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이 진행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 체험의 장이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펼쳐졌다. 4만여 명의 시민들이 교육박람회를 위해 박물관에 방문하여 자유롭게 각 박물관, 미술관 부스가 마련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2.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II
3. 문화예술교육포럼
4. 해외전문가 워크숍
5. 유관학회 세미나



02-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처음의 시간: 아주 어린 사람들에 대하여 About the Very Young: Inspiration from the Experience

일시 2019.5.22(수) 14:0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대상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등

문화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 첫 번째 날은 남인우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의 진행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를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어린 아이들을 관찰하고, 어린 아이들을 둘러싼 질문들에 깊이 천착해 온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청중들과 공유하였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어떤 신념과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예술의 결합은 왜 중요한지 등 매개자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함께 풀어내는 자리가 되었다.

모더레이터
남인우 In Woo Nam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Art Director, Play BST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재주많은 다섯 친구>, <소년이 그랬다> 등의 작품을 연출한 남인우 감독은 한국 어린이청소년연극을 이끌며, 연극의 교육적 가치, 예술의 힘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그는 “상상력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시절로부터 회복하는 것이지, 개발하는 게 아니다”라는 스승의 말에 ‘과연 누가 아이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훼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어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 역시 연극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청중들을 대신해 네 명의 연사들과의 대화를 이끌었다.

사회: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		
축사	14:00~14:05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규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특별강연	14:05~14:30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특별공연	14:30~14:45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모더레이터: 남인우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발제	14:50~16:10	최영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영유아를 만나는 예술가와 예술 교육가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까?
		로베르토 프라베티 라 바라카 극단 예술감독 연극과 아주 어린 사람들
		아쿠아 코아테-테이트 울프트랩 부대표 예술: 균형 있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의 멋진 친구
라운드 토크	16:10~16:40	모더레이터와 발제자 전원

02-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특별강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How to pass your values on to your kids?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아이로 키우는 것, 주변의 사람들과 그럭저럭 잘 지내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조금 행복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했던 부모님이 어깨를 꼭 안아줬던 기억,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줬던 기억, 겪어보면 별거 아니야, 다음에 또 하면 돼 라고 말해줬던 얼굴의 표정과 음성의 기억. 이 기억들을 가지고 아이는 어려움을 겪어 나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은영 Eun-young Oh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hild&Adolescent Psychiatry Specialist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EBS ‘부모’ 등 다양한 매체와 강연을 통해 국민 육아 멘토로 알려져 있다. <오은영의 화해>,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가르치고 싶은 엄마 놓고 싶은 아이>, <못참는 아이 육하는 부모>, <오은영의 마음처방전 성장, 행동, 감정>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수년간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육아기술보다 부모철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밝고 힘 있는 육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주간행사 개막무대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오은영 박사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의 의미,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과 마음 구별하기, 감정을 읽는 제대로 된 마음 공감하기 등 부모를 비롯한 모든 어른들이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특히, 진정한 어른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아이가 인생에서 겪게 될 실패와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내는 ‘내적인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어른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선사했다.

특별강연



02-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특별공연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사전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결과 공유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엄마와 작곡가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보들보들>, <라봉라봉>, <초코케익> 세 곡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아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을 전하는 세 엄마의 진솔한 노래는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힐 만큼 잔잔하고도 큰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올해 주간행사의 대주제를 다시금 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래	작곡가와 엄마들
작곡가	김혜성, 최새봄, 김인규
엄마	강지우, 최미경, 심유라
악기	김인규(건반), 최새봄(기타), 박건영(플루트), 이지행(첼로)
음악감독	이나리메
프로젝트 기획운영	서지혜, 김정선, 구자민, 김현숙, 박예림

*음악가들이 지닌 풍성한 음악적 자산과 개인적 역량이 사회의 개개인,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 긴밀하게 맞닿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SEM네트워크(사회참여적 음악가 네트워크, Socially Engaged Musicians Network)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 했다.

특별공연



02-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발제1

영유아를 만나는 예술가와 예술교육가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까?

Why artistic experience for Early Years?

“영유아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만약 감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인보다 더 성숙한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성장을 나누는 기준이 감성이 된다면 지금의 어린이와 어른의 구분은 어떻게 바뀔까요? 호기심이나 상상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지금의 기준이 과연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어린이처럼 영유아도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로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된 존재로 존중 받는다는 것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본다’는 곧 ‘한다’입니다. 보는 힘은 일상생활에서 창조적인 힘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유아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인 ‘창조적인 보기’는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자로서 어떻게 예술에 다가가야 할 것인지 영감을 주며, 예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예술가로서 혹은 예술교육가로서 삶에 대해,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만이 우리들을 심연에 이르게 하는 즐거움과 행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적 경험입니다.”

최영애 Young Ai Choi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아동청소년극 전공 교수

Professor, Drama/Theatre for the Young, School of Dram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최영애 교수는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초대 소장, 교육극단 사다리와 국제아동청소년연극리서치네트워크(ITYARN) 창립 멤버로서, 국내 아동청소년극 1세대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2008년 아시테지(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세계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지금은 명예이사로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내외 현장과 이론을 넘나들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 17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 프로젝트(EU Project)에서 영유아의 공연예술분야 미적체험 맵핑 작업 연구에도 참여중이다.

발제1

예술가와 예술교육자는 왜 영유아에 주목하는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야 하는지, 영유아의 예술 경험은 왜 중요한지 등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질문들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애 교수는 아이들의 미래 삶에 요구되는 창의성은 주체적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경험은 ‘좋은 예술’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유아와 소통하는 예술가와 예술교육자는 의미 있는 미적 경험을 위해 삶과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를 위한 예술과 예술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 교사들의 합의와 선택이 필수적이며, ‘문화 지형 만들기’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02-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발제2

연극과 아주 어린 사람들

The theatre and the very young

“연극배우로서 영유아와 만난다는 것은 듣고 말하는 사이의 균형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듣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 안에 있는 듣기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듯 모든 감각을 동원해 아이들과 소통할 때 아이들을 ‘위해’가 아닌 ‘함께’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써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보내는 모든 신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3세 이하의 영유아는 침묵으로도 소통을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아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아이들 역시 여러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 놀랍고도 독특한 침묵(말하지 않음)과 눈빛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말합니다.”

로베르토 프라베티 Roberto Frabe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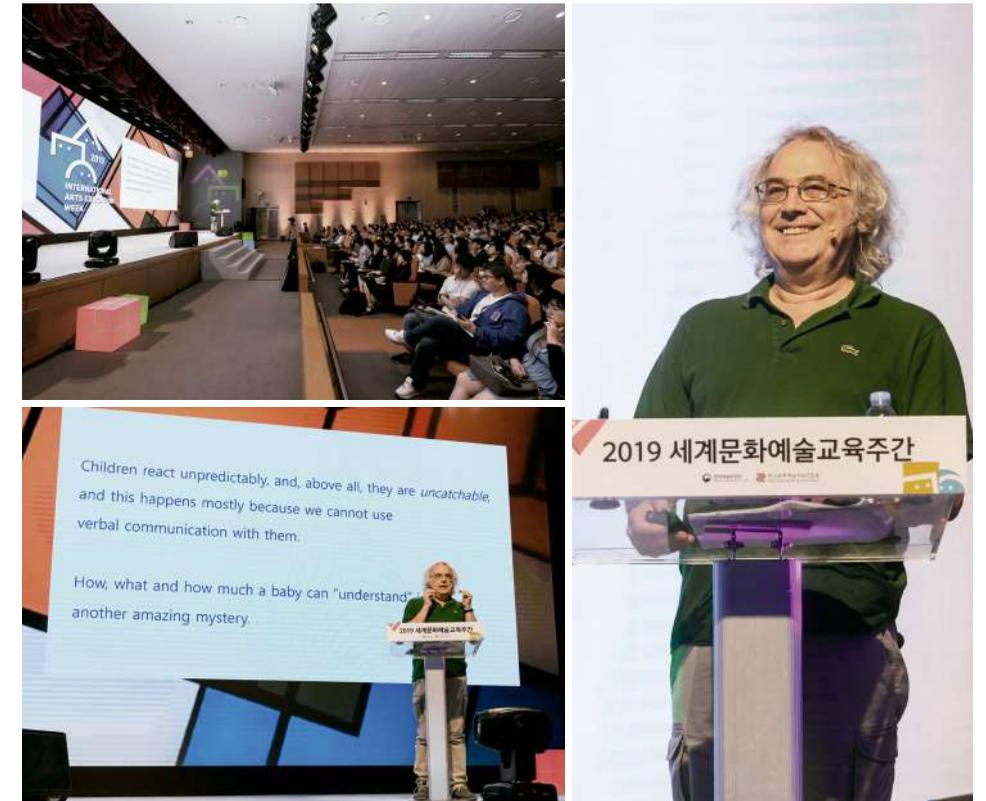
극단 라바라카 예술감독·연극예술가

Artistic Director·Theatre Artist La Baracca-Teatro Testoni Ragazzi

로베르토 프라베티는 이탈리아 볼로냐에 위치한 아동청소년극 전문 극단인 라바라카-테스토니 라가지 극단(La Baracca-Teatro Testoni Ragazzi)의 창단 멤버로 현재 극단의 감독이자 배우,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영유아를 위한 공연예술 확산을 위해 유럽 내 국가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스몰사이즈’ 프로젝트를 총괄했고, ‘문화예술 아동 권리 헌장(Charter of Children's Rights to Art and Culture)’을 발표해 이탈리아 정부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작품 62편을 발표하였고, 이 공로로 아동 관객을 위한 극장 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업적을 달성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아시테지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영유아를 위한 공연예술의 심리학 지도 프로젝트 “맵핑(Mapping)”을 유럽연합의 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 후원을 받아 유럽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발제2

영유아를 위한 연극 모델이 없던 시절부터 30년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극을 쓰고 만들어온 로베르토 프라베티(Roberto Frabetti)가 어린 관객들과 함께한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풀어놓았다. 그는 예술가로서 어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들이 정말 놀라운 청중이며, 열정적으로 집중할만한 연구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차 말하였다. 36개월이 채 안된 아이들이 40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연극을 감상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기록 영상은 그의 믿음에 힘을 실었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실제로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연극을 통해 증명한 사례로 청중들에게 전달됐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완전하고 훌륭한 관객으로 충분한 존재이므로 예술가는 이들에게 최고의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들도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02-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발제3

예술: 균형있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의 멋진 친구

The Arts: A Great Equalizer to Support Children's School Readiness and Success in Life

“예술에 집중하는 이유는 예술이야말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음악, 무용, 연극 등 예술분야와 언어, 과학, 수학 등 교과분야를 결합하는 ‘예술통합학습’은 예술과 교과목이 내용과 기술적인 부분 간 단절 없이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예술교육자들은 모든 감각을 통해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예술통합학습이 아이들로 하여금 고차원의 사고를 하도록 하고, 다양한 종류의 스킬, 협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종종 교실에서 하지 못하는 제약된 상황에 집중하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는 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 학습의지는 모든 교육자들이 자유롭게 갖게 되는 소중한 자원인데 말이죠.”

아쿠아 코야테-테이트 Akua Kouyate-Tate

울프트랩 부대표·영유아기관 총괄

Vice President·Education Wolf Trap Foundation for the Performing Arts

1981년 설립된 울프트랩은 영유아부터 7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술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쿠아 코야테-테이트(Akua Kouyate-Tate)는 울프트랩 부대표이자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다. 2001년 울프트랩에 합류하기 전 25년 이상 다양한 예술기관, 장애인 재단, 정부기관에서 예술가, 교육자, 관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미국 연방예술기금(NEA)과 주지역 단위 예술기관 예산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발제3

울프트랩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영유아 대상 통합 예술교육 모델을 소개하고, 예술과 결합된 학습의 가치와 효과성을 공유하였다. 울프트랩은 영유아 교육, 영유아 교육자의 전문역량 개발, 예술 통합이라는 3가지 요소에 집중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5년간 다양한 실천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울프트랩의 티칭 아티스트가 영유아와 교사가 있는 교실로 직접 찾아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맞춤형 예술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예술통합 교육 사례를 소속 티칭아티스트의 시연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예술을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적·정서적 성장, 언어, 문해력,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소통능력, 협력, 창의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영유아들은 상상력과 열정으로 활동할 때 가장 잘 습득한다’는 레지던시 참여 교사의 말을 전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02-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발제4

예술교육으로 떠나는 여행

A Journey in Kids Art Education

“예술은 소통이며,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습니다. 실수해도 되고, 탐험을 하다 길을 잃어도 좋습니다. 아이가 ‘내가 뭔가 가치 있는 표현을 했구나!’ 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이때가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무엇을 가르칠지, 빈 공간을 어떻게, 얼마나 남길지 계속 고민합니다. 예술은 곧 대화이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예술교육 워크북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대화의 반을 채웠으니, 아이들이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물론 과정을 상기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실제 대화도 필요합니다.”

마이크 더튼 Mike Dutton

톤코하우스 예술감독 Art Director, Tonko House

톤코 하우스는 미국 픽사 스튜디오에서 각광받던 예술감독들이 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설립한 창작 스튜디오이다. “모두가 재미와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단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아닌 도서, 교육자료 제작, 교육프로그램,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마이크 더튼(Mike Dutton)은 톤코 하우스에 합류하기 전 구글 두들러(Doodler)로 200개 이상의 구글 메인페이지를 디자인한 한국계 아티스트로,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 도서에 삽화를 그리고 있다.

발제4

톤코 하우스의 가장 최근 교육 프로젝트인 5-7세 어린이를 위한 예술교육 워크북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발전시켜온 과정과 아티스트로서의 철학을 공유하였다. 특히 그가 어린이를 위한 예술교육에 접근하기 위해 끊임없이 던지는 네 가지 질문인 “재미가 있는지, 호기심을 자극하는지, 다시 참여하고 싶은지, 과정을 돌아보고 생각해볼 여지를 주는지”를 소개하며, 이 질문들이 예술가와 예술교육자, 어린이들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그는 예술이 대화라고 생각한라며,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 경험 역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경험을 진솔하게 전하였다.



02-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라운드 토크

남인우

미디어 및 기술과 영유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유아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프로젝트나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술 및 예술교육은 미디어 아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영애

제 발제에서는, 굉장히 어린 아이들, 만 4세 미만인 아기들이 너무 많은 시간 미디어에 노출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어린아들은 여러 가지 예술 형식에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운동성 있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도 있지만, 조용히 앉아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찾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선생님이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셔서 그것이 충분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Inspire curiosity', '호기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불러일으킨다'는 말,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생각과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이크 더튼

아까 저와 아이들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아이패드를 덜 보면 성과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용 워크북을 만들어서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어떤 부모는 매장에서 사서 아이 혼자 하도록 던져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종이로 된 책이든, 아이패드든, 결국은 이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인우

교육의 질은 콘텐츠나 교과가 아니라 교사의 자질이다라는 말처럼 예술도 마찬가지로 예술 그 자체, 콘텐츠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베르토 선생님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30년 동안 이런 일들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영유아의 예술 환경을 위해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공조를 하는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서 극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운드 토크

로베르토 프라벤티

답변 드리려면, 최소한 2시간은 필요할 것 같군요. 각 국가별로 시스템이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교육제도도 다르죠. 모든 프로젝트는 그 문화와 교육제도에 맞게 이뤄져야 합니다. 볼로냐의 영유아 교육기관은 단순 돌봄 뿐 아니라 교육도 하고 있어요. 또 문화적 지원도 받고 있죠. 주정부와 연방기구의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볼로냐 지역 자체가 문화적 복지가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1982년부터 모든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영유아에 대한 연구는 시 정부와 협력하여 교사들, 학부모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로냐시는 약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현재 0세에서 3세를 위한 공공기관이 60여개입니다. 적절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새로 제작된 연극이 이 60개의 기관에 제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남인우

커뮤니티 안에서 예술가나 교사, 공공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베르토 프라벤티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유아 기관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고요. 공공기관들이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여러 연구도 진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영유아 청중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사들과 협력하여 연구도 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저희 극단의 경우에는 매년 모든 연령대를 위한 350건의 공연을 하고 있어요. 영유아 아이들의 가족을 위한 연극도 진행하기 때문에 부모와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남인우

로베르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술가들과 예술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같은 관련 정부기관 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올프트랩 코야테 선생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술을 위한 학습방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방식에 논리적이고 예술적인 배움의 지향점은 단순히 학습적 기능의 향상과는 다른 목표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지향이 무엇이며, 이것이 일반학교나 미국의 입시제도 등의 사회적 요구와 충돌하나요? 아니면 동의를 얻고 있나요?

02-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라운드 토크

아쿠아 코야테 테이트

울프트랩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양질의 예술 통합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봄 제공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예술을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제도와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정한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 돌봄 제공자,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일에 보조적인 도구로 우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학습과정이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남인우

한 질문자께서 예술과 교육의 융합이 예술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살짝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답변을 들으시면 느끼셨겠지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 예술이 다양한 것만큼 예술교육의 방법도 다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울프트랩의 영상을 보고 조금 부러웠던 것이, 예술교사들이 예술교육 현장에서 저렇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니 매우 좋고, 우리도 해보고 싶어요. 의지는 있는데 더 깊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유아극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이나 학교가 있는지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최영애

우선 저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여 년쯤 전에 세계적으로 영유아극을 선두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게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세 나라의 사례들을 보셨는데, 사실 그것이 좋은 사례라고 해도 금방 배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좋은 사례라고 해서 다 가져올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위한 문화예술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 문화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예술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서로 이야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는 어린 아이부터 중고등학생을 위한 아동청소년연극 전공이 석사과정으로 3년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꼭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 사실은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운드 토크

남인우

굉장히 오랜 시간 자신의 질문과 철학으로부터 그리고 문화적 지형으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물론 10년 전부터 같은 질문을 해왔지만, 공공기관, 예술가, 예술교육가들은 어떤 발걸음을 떼야 할지, 누구와 떼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흰 눈발을 홀로 걸을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히지 말아라. 훗날 너의 발걸음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오늘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발걸음에 질문과 경험과 철학을, 그리고 방법을 함께 나눠 주신 네 분의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도 한걸음 한걸음씩 같이 걸어갈 바라고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2-2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I

끝없는 시작: 예술로 만나는 탐구자들의 이야기

About the Arts Explorers: Sharing ideas, practices, and insights

일시 2019.5.23(목) 14:00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
대상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등

2019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두 번째 날은, 김종길 경기도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의 진행으로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실천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내외 여러 문화예술교육 기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집과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보다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법과 창조적 교육환경 조성, 프로그램 개발 사례 등 문화예술기관 기반의 다양한 예술교육 실행 사례를 공유하여 영유아-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을 모색하였다.

여는 이

김종길 Gim Jong-gil

경기도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Chief Curato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이다. 모란미술관과 경기도 미술관 큐레이터를 거쳐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평화박물관 SPACE99운영위원장,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의 예술교과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도 미술관에서 <1970-80년대 한국의 역사적 개념미술: 팔방미안>(2010), <경기도의 힘>(2010), <1990년대 이후의 정치미술: 악동들, 지금/여기>(2009), <언니가 돌아왔다>(2008), <경기, 1번 국도>(2007) 등 여러 전시를 기획하였고, 저서로는 <육상의 정치>, <포스트민중미술 사면/리얼리즘>, <오윤 전집> 등이 있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신인평론상, 이동석전시기획상, 김복진미술이론상, 한국박물관협회 올해의 큐레이터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그는 어린이와 관련된 10편의 시와 아포리즘 낭독을 청중들에게 제안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참여를 이끌었고, 미술관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중과 네 명의 연사 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였다.

구분	시간	내용
여는 마당	14:00~14:10	마중 낭독+음악+영상 여는 이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수석큐레이터
제 1 법석	14:10~14:55	이꿈 말 루시 힐 디 아크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아티스 현실화 이론-디 아크 어린이문화센터의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마당 말 모두 함께
제 2 법석	14:55~15:40	이꿈 말 예 수광 싱가포르국립미술관 교육부 부국장 어린이가 예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당 말 모두 함께
사이 마당	15:40~15:50	쉽 음료+음악+영상
제 3 법석	15:50~16:35	이꿈 말 캣 박스 테이트 미술관 테이트 키즈 프로듀서 놀이 만들며 탐구하기: 테이트 키즈의 온라인 예술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법 마당 말 모두 함께
제 4 법석	16:35~17:20	이꿈 말 황지영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학예사 참여하는 미술관: 어린이 · 가족이 함께하는 열린 공간의 예술 경험 마당 말 모두 함께
닫는 마당	17:20~17:30	배웅 음악+영상

02-2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I

이끔 말1

현실화 이론 - 디아크 어린이문화센터의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Materialising Theory - An Early Years Artist Residency at The Ark Children's Cultural Centre, Dublin

“예술은 작은 것들이 거대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초기 영유아 단계에서 예술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보다 높은 차원의 경험과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변화 가능성을 경험하면서 재료에 관한 새로운 탐구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비슷하고 동일하게만 여겨지는 현상을 넘어서, 기존의 관념들과 특정 기능을 희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확장시킵니다.”

루시 힐 Lucy Hill
디아크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아티스트
Artist of Early Years Artist in Residence, The Ark Children's Cultural Centre

루시 힐(Lucy Hill)은 유아 시각예술교육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지닌 예술가이자 교육자, 연구자다. 현재 국립예술디자인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디아크 어린이문화센터'의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예술가로서 연구 이론과 예술적 실천을 연결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디아크(The Ark)는 1995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건립된 유럽 최초의 어린이 문화센터로, 2살부터 12살까지의 아이들이 예술을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과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디아크는 성장 초기 단계에 예술과 관계맺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확대를 위해 예술가에게 1년 동안 연구를 지원하는 '존 쿨라한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Prof. John Coolahan Early Years Artist in Residency)'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2세~4세 유아, 부모 및 양육자들과 만나 진행된 시각 예술교육 워크숍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녀는 특별히 '재료(material)'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어떻게 실용적인 예술교육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재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은 새로운 조합으로 재탐색 될 수 있어 상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나이나 능력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는 기존의 편견이 희석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어른이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당 말1

[주요내용 요약]

- Q. 발제 중 어른들이 교육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어른이 함께 하여야 아이들이 흥미롭게 관계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A. 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주 연령대가 2~4세이기 때문에, 어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보호자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함께 있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어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로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위한 예술 공간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Q. 재료를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재료만 가지고 활동할 때 색깔이나 최종 결과물 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A. 어떠한 개념이나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할 때, 재료는 색이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료는 개개인의 관점과 흥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보일 수 있으므로, 그 자체의 특성에 접근하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의 발명을 이끌어내며 보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간과 함께 연관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2-2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I

이꿈 말2

어린이가 예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do children want to know about Art?

“진정한 예술은 역사와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인의 경험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예술이(예술가)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심이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예술과 만나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통상 예술은 시간이 있을 때, 또는 시험 후에 즐기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초적이고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의 기대효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슈팡 Ye Shufang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교육부 부국장, 케펠예술교육센터장

Deputy Director of Education & Head of Keppel Centre for Art Education,
National Gallery Singapore

예 슈팡은 1995년 싱가포르 라살예술대학(LASALLE College of the Arts)에서 시각예술 강의를 시작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미술학부와 석사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연구·실습·평가 구조를 개발하고 지도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싱가포르예술대학(SOTA)의 시각예술 학과장으로 IB학위 프로그램의 6년 과정 커리큘럼을 연구·개발·운영하였으며, 예술교육 평가척도와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교수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현재는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에서 어린이, 가족, 교사들을 위한 학습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하고, 예술교육 전용공간인 '케펠예술교육센터'를 이끌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은 오늘날 어린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그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미술관의 대표적 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케펠예술교육센터'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과 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예술을 발견하고 탐구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교육부와 협력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미술관 방문하여 예술을 경험하도록 하는 '초등 4학년 미술관 기반 학습 프로그램'(the Primary 4 Museum-based learning programme)을 소개하면서, 실제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이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의 중요성과 기대효과에 관해 설명하였다. 예술은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예술적 활동을 기반으로 보다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일깨우며 이야기를 마쳤다.

마당 말2

[주요내용 요약]

Q. 예술교육에 있어 퍼실리테이터(매개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퍼실리테이터는 예술을 일상으로 이어주는 가교와도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은, 정답과 오답이 아닌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예술에 대한 어휘력을 높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보다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예술교육이 진행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예술에 대한 교육과 함께 소통 방법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더 좋은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Q. 미술관에서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숙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해서도 공간이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케펠센터에서는 동일한 작품이 2년 동안 전시되게 함으로써 익숙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속해서 방문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번 공간을 극단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장소와 전시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가진 호기심과 주관적인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2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I

이꿈 말3

놀이 만들며 탐구하기: 테이트 키즈의 온라인 예술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법
Play, make and explore: How Tate Kids engages kids with art online

“아이들은 자신의 예술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표현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삶은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구분이 없는데요,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즐겁고 의미 있는 예술 플랫폼을 만들고 실제 삶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굉장히 트렌디 하면서 재미있는 것들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 이것은 디지털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클릭하고 보고 듣는 활동 속에 예술의 아름다운 측면과 배움을 연결하여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합니다.”

켓 박스 Kat Box

테이트 미술관 테이트 키즈 프로듀서 Tate Kids producer, TATE

켓 박스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의 어린이 전용 온라인 예술 플랫폼인 테이트 키즈의 프로듀서이다. 지리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맨체스터 대학교, 휘트워스 미술관과 맨체스터 박물관에서 근무하였다. 학습, 디지털, 마케팅 세 가지 요소의 혼합을 통해, 미술관, 메이커 스페이스, 모바일 디바이스 등에서 예술참여를 이끌어내는 보다 창의적인 접근 방식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테이트 키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과 닿으며, 그들이 예술을 즐기고, 배우며,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어린이 미술관이다. 예술가, 창작 기법, 장르 등 다양한 예술 관련 소재를 게임, 퀴즈,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여,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어린이들도 예술을 실제로 경험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나이대를 기준으로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보이는 주요 행동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더욱더 쉽고 안전하며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들을 공유하였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묻고 귀 기울이며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마당 말3

[주요내용 요약]

- Q.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나, 구상중인 계획이 있는가요?
 A.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접근성의 중요성은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술작품에 대한 묘사를 시각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디오나 수화를 활용하여 그림은 청각으로, 또 그림에 대한 설명은 수화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아주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Q. 온라인 예술교육의 목적은 무엇인지, 테이트 키즈의 최종적인 목표는 오프라인에서의 미술관 관람을 이끌어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저희가 목적하는 바는 어린이들이 예술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하기보다 이제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Q. 테이트 키즈 사이트를 살펴보면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결과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결과물에 대한 아카이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그것에 맞게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의 질에 따라 나누지 않고, 제한 없이 축적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단, 폭력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는 삭제됩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은 디지털 전시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시되며, 결과의 축적과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02-2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I

이쯤 말4

참여하는 미술관: 어린이·가족이 함께하는 열린 공간의 예술 경험 Participatory museum: Arts experience for Children and Families

“어린이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예술이 던지는 질문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문과 재료, 모든 것이 짜인 것이 아닌 과정 속에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합니다.”

“학습이나 배움이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동하는 미술관 경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예술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술교육의 촉진자로서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예술, 공동체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황지영 Hwang Jiyoung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학예사

Department of Education & Cultural Programs Associate Educat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황지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창립멤버로, 2014년까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연구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사업’, ‘어린이·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과 서울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1997년 개관한 과천 어린이미술관은 ‘자연 속 미술관’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 놀이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은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가 가족(동반자)과 함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현대미술 기반의 워크숍을 운영하며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이 되기 위한 실천을 이어왔다. 열린 공간에서의 예술 경험은 4가지 요소, 즉 모두가 접근 가능한 환경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성, 참여자 스스로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함께 일상으로서 예술 경험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미술관의 참여형 워크숍 실행 사례들을 공유하며, 처음부터 모든 것이 짜인 틀 속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예술 경험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상호 소통할 ‘여지가 많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당 말4

[주요내용 요약]

Q. 미술관 차원에서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등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낮은 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장애인 예술가나 관련 학교, 단체, 가족, 하나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접근성향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 특성상 홍보 측면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궁극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연령,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군 내에서 일반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구체적으로 ‘여지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실제로 미술관에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본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일방적으로 전시나 예술가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확연하게 집중도가 떨어지고요. 따라서 질문 카드나 단서 카드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답을 내려 보는 활동이나, 플라로이드 사진기나 무전기를 활용한 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활동이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발제 중에 참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때 보다 더 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02-3 문화예술교육포럼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일시 2019.5.24(금) 15:00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멀티프로젝트홀
대상 문화예술교육 참여 주체, 관계자, 전문가 및 일반시민

집, 학교가 아닌 제3의 공간으로써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영감을 제공하고, 각자의 속도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을 소개하였다.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세 곳의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이 어떤 철학과 원칙을 견지해왔고, 어떤 공간과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 실행 사례를 공유하고, 제3의 공간 확산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이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언제든지 마음껏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의 속도를 따라가며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곳이라는 기본 전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공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화를 마무리하였다.

시간	구분	연사	내용
15:00-15:20	개별발표	C Program 신혜미 매니저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의 의미와 제3의 공간으로서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을 소개한다.
15:20-15:40		헬로우뮤지엄 김이삭 관장	각 기관별로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제 3의 공간으로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공간을 운영하는 철학과 방식을 공유한다.
15:40-16:00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	
16:00-16:20		노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	
16:20-17:00	대담	C Program 신혜미 매니저 및 3명 연사	2019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을 늘려 가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이야기한다.

발표1

신혜미 | C Program 매니저

C Program은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에 투자하는 벤처 기부펀드이다. 플레이 펀드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들을 계획하고, 만들고,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신혜미 매니저는 아이들을 위한 제 3의 공간의 의미와 함께 제 3의 공간으로서의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을 소개하며 미래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일지를 생각해보도록 했다.



02-3 문화예술교육포럼

발표2 김이삭 | 헬로우 뮤지엄 관장

헬로우 뮤지엄은 2007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어린이미술관이다. 아이들이 미술관에 대해 갖는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해왔다. 헬로우 뮤지엄에서는 아이들이 '아이답게 예술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 원칙, 즉 아이들을 미술관의 주인공으로 변화게 하는 인사(greeting), 참여(engaging),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 연결(breezing)되는 것을 고려하여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원칙을 담아 개발한 '아트동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며, 미술관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행복을 주는 곳,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편안한 곳, 제 3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의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발표3 이정모 |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서울시립과학관은 청소년의 기초 과학 이해를 돕고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2017년에 건립한 최초의 시립과학관이다. 서울시립과학관에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없다. 과학관은 으레 과학 역사에 획을 그은 엄청난 전시물과 천재 과학자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오히려 과학관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험은 지속적인 참여와, 최소한의 과학 지식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정모 관장은 이 점을 고려해 과학관은 어린이와 가족을 넘어 모든 연령층이 쉽게 찾아가고, 참여할 수 있는 일상 공간, 제 3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02-3 문화예술교육포럼

발표4 박영숙 | 느티나무도서관 관장

느티나무도서관은 2007년에 개관한 경기도 용인의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민간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아이들만의 공간은 아니지만, 이곳에는 학교나 공원을 오가다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배려한 공간이 많다. 1999년부터 수지구의 아파트 지하에 작은 도서관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20년간 도서관을 일궈 온 박영숙 관장은 도서관은 가르치지 않아서 더 넓고, 깊게 배울 수 있는 배움터라고 말한다. 가르치려는 대신 책과 사람을 만나 스스로 배우는 힘을 믿고 존중하는 것, 평가나 경쟁 대신 지적 호기심으로 배움의 동기를 찾도록 북돋우는 것, 일상적인 만남과 소통이 배움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런 도서관을 꿈꾸며 작은 변화를 쌓아나가는 것이 힘이 된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02-4 해외전문가 워크숍

해외전문가 워크숍

일시 2019.5.20(월)-5.23(목)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EBS사옥, 톤코하우스 특별전시회 갤러리
대상 어린이 및 어린이포함 가족, 영유아를 둔 부모

가족 워크숍			
일시	프로그램명	초청단체/전문가	장소
5.20(월)	10:30-12:30 14:00-16:00	땅으로! 바다로! 예술의 즐거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5.21(화)	10:30-12:30 14:00-16:00		일산 EBS 사옥
어린이 워크숍			
일시	프로그램명	초청단체/전문가	장소
5.20(월)	09:00-10:15 10:30-11:45	톤코하우스 마이클 더튼(Mike Dutton)	톤코하우스 특별전시회 갤러리
5.21(화)	10:30-11:45 13:00-14:15		
부모 워크숍			
일시	프로그램명	초청단체/전문가	장소
5.23(목)	11:00-13:00 14:00-15:00	로베르토 프라베티 (Roberto Frabetti)	일산 EBS 사옥

가족 워크숍

땅으로! 바다로! 예술의 즐거움(Arts Fun on Land and Sea)

일시	장소
5.20(월) 10:30-12:30, 14:00-16:0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5.21(화) 10:30-12:30, 14:00-16:00	일산 EBS 사옥

프로그램

예술 경험에 포함된 청각, 시각, 촉각, 움직임, 언어를 활용해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가족이 다 함께 몸짓과 이야기, 노래와 춤을 통해 바다와 들판을 탐험하였다. 울프트랩 강사의 손과 발, 의성어로 만든 리듬과 동작을 따라하며 사바나 초원의 동물들이 되어 초원을 달리기도 하고, 물고기들과 함께 바다를 누비는 즐거운 상상의 모험을 떠났다.

참여 단체

울프트랩은 미국 국립공원 내 공연예술 프로그램과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워싱턴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재단이다. 특히 재단의 내부 교육기관(Institute for Early learning through the arts)에서는 영유아기의 통합적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연구, 티칭아티스트·교사 협력 프로그램, 유아·가족·돌보미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미국 전역의 교육기관에서 울프트랩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울프트랩의 부대표 아쿠아 코야테-테이트(Akua Kouyate-Tate), 수석 티칭 아티스트 텔렌 테리 토드(Terlene Terry-Todd), 크리스티나 파렐(Christina Farrell)이 참여하였다.



02-4 해외전문가 워크숍

어린이 워크숍 호기심과 상상의 세계여행

일시	장소
5.20(월) 9:00-12:30, 10:30-11:45	톤코하우스 특별전시회 갤러리
5.21(화) 10:30-11:45, 13:00-14:15	

프로그램

여러 친구들과 다 함께 한 장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미술과 교육을 접목해 만든 <글씨가 없는 워크북>을 통해 호기심과 상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았다. 5세~7세의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다양한 크기의 원이 그려진 큰 도화지에 자유롭게 덧그리며 함께 그림을 그렸다. 제일 좋아하는 동물과 지금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한 후, 두 가지 소재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단체

미국 픽사 스튜디오에서 각광받았던 두 예술감독이 창업한 톤코 하우스는 '모든 사람들이 재미와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미션을 표방하며, 영화, TV 시리즈, 도서, 교육 프로그램, 전시회를 제작하는 복합 미디어 회사이다. 20여 차례 수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첫 단편 애니메이션 'Dam Keeper (댐지기)'는 샌프란시스코 필름 소사이어티와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 되기도 하였다. '워크북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젊은 아티스트와 예술지망생 대상으로 만든 '보는 방법'과 '페인팅 방법'의 교육과정을 5-6세 아이들을 위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처음 공개 하였다. '워크북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자 톤코 하우스의 예술감독인 마이크 더튼이 이번 워크숍을 이끌었다.



부모 워크숍

어린이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예술, 상상력, 그리고 몸

일시	장소
5.23(목) 11:00-13:00, 14:00-16:00	일산 EBS 사옥

프로그램

어린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성을 확인하고, 몸의 움직임을 통해 어른과 아이들이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30년 이상 연극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온 강사는 어린 아이들이 높은 집중력으로 연극 감상을 하며 예술적 자극을 느끼는 순간을 포착한 영상자료를 활용해 어린이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였다. 강의에 이어 무용 워크숍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 시선과 언어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다.

참여 전문가

로베르토 프라베티는 이탈리아 볼로냐에 위치한 아동청소년극 전문 극단인 라바리카-테스토니 라가지 극단(La Baracca-Teatro Testoni Ragazzi)의 창단 멤버로 현재 극단의 감독이자 배우,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영유아를 위한 공연예술 확산을 위해 유럽 내 국가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스몰사이즈' 프로젝트를 총괄했고, '문화예술 아동 권리 헌장(Charter of Children's Rights to Art and Culture)'을 발표해 이탈리아 정부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작품 62편을 발표하였고, 이 공로로 아동 관객을 위한 극장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업적을 달성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아시테지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영유아를 위한 공연예술의 심미학지도 프로젝트 "맵핑(Mapping)"을 유럽연합의 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 후원을 받아 유럽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02-5 유관학회 세미나

일시 2019.5.21(화)-5.25(토)
장소 서울 및 수도권 일대 13곳
대상 학회 회원 및 관계자,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단체 관계자, 대학(원)생, 일반 시민 등등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분야 유관학회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학술 행사를 진행했다.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담론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학문적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확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시	학회명	주제	장소
5.21(화)	10:30-14:30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영유아의 인성교육과 심리발달을 위한 무용/동작 중심 예술 교육의 접근방향 및 적용사례	서울 성수동 cow&dog
	17:00-20:00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영·유아와 아동들을 위한 피아노 교육의 문제와 방향	중앙대학교 법학관 303호
5.23(목)	14:00-17:20	(사)한국영화교육학회 어린이 영화교육 활성화 방안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 세미나실
5.24(금)	19:00-21:00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연주와 함께하는 음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주와 이야기 분석을 통한 음악교육의 대중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오페라실
5.25(토)	10:00-12:00	한국무용과학회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	대학로 예술가의집
	11:00-14:00	한국연기예술학회 21세기 예술과 사회의 연계성 연구	서울연극센터 2층 아카데미홀
	13:30-17:40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논하다	한예중 대학로 캠퍼스 강당
	13:00-17:00	한국교육연극학회 연극예술로 세상과 호흡하기 - 예술이 인간을 기른다: 발달론의 예술적 접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 다목적실
	14:00-18:00	한국연극교육학회 연극예술의 창조과정과 방법론을 논문화하기 위한 형식개발	중앙대학교 공연예술원 401호
	10:00-15:00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 점검 탐구, 의견제안	동국대학교 문화관 2층 PBL실
	11:00-14:00	한국예술교육학회 예술교육의 현황과 전망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L501
	14:00-17:00	한국음악교육학회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L501
	13:30-18:00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공학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203호

대한무용/ 동작심리 치료학회

영유아의 인성교육과 심리발달을 위한 무용/동작 신체 예술교육의 접근방향 및 적용 사례

무용/동작 신체 중심 예술교육이 영유아의 인지·정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영유아의 심리발달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움직임 놀이의 방법과 KMP((Kestenberg Movement Profile) 이론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하여, 예술교육자, 양육자, 보육전문가들이 임상 현장에서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움직임 예술교육을 계획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진행내용 개회 | 최희아(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회장)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개회	영유아의 인성교육과 심리발달	최희아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회장)
제 1 발표	영유아의 심리발달을 위한 놀이치료 - 신체 놀이를 치료적으로 이해하기	유민화 (마음공간심리치료연구소 부소장)
제 2 발표	KMP 신체 리듬 이론과 영유아의 심리 발달적 의미	남희경 (한국예술심리치료연구소 소장)
제 3 발표	KMP의 tension flow 리듬을 활용한 무용/동작심리 치료가 영유아기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효과	구자윤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치료사)
토론	청중토론	최희아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회장)



02-5 유관학회 세미나

한국피아노 교수법학회

영유아와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의 문제와 방향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국내 피아노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 및 통합예술교육으로 전환 등 향후 음악교육의 방향성 모색과 함께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영유아와 아동이 흥미를 잃지 않고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창의성 계발에 도움이 되는 음악교육 방안,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음악 콘텐츠의 활용 등 현장 교사들이 주목할 만한 이슈로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진행내용 개회 | 박지원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장)
폐회 | 최진호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플랫폼을 통해 살펴본 영·유아 클래식 콘텐츠의 현황과 전망	정환호 박사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토론	추상희 박사원생 (중앙대학교 음악학 박사과정)
제 2 발표	영·유아 및 아동들의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	최진호 박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토론	이민지 박사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강사)
제 3 발표	어린이들의 놀이, 상상력, 그리고 음악교육: Brain Research와 연계하여	박지원 박사 (나사렛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토론	최영미 박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사)한국영화 교육학회

어린이 영화교육 활성화 방안

국내·외 어린이 영화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영화/영상교육이 공교육 편입 및 일반 교양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현장에 함께한 현직 교수, 예술강사, 대학(원)생들은 영유아를 위한 영화/영상교육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시작해 공교육 현장의 인식, 제작 및 리터러시 교육 현황,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전개하였다.

진행내용 개회 | (사)한국영화교육학회장
사회 | 민경원 (순천향대), 진승현 (호서대)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어린이 영화교육 필요성	이아람찬 (세종대학교)
제 2 발표	국내 어린이 영화교육 현황	박명호 (예술강사/ 미디어교사)
제 3 발표	해외 어린이 영화교육 현황 1	구상범 (한국영상대학교)
제 4 발표	해외 어린이 영화교육 현황 2	홍재용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종합토론	장민용 (서경대학교) 최중환 (세명대학교) 류훈 (성결대학교) 고동우 (호서대학교)



02-5 유관학회 세미나

한국서양음악 이론학회

연주와 함께 하는 음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주와 이야기 분석을 통한 음악교육의 대중화

스토리텔링으로 쉽고 재미있게 음악 감상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세 명의 발표자는 음악을 둘러싼 이야기와 실제 연주를 함께 전달하여, 어렵게만 느껴지는 현대 음악에 청중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연령의 청취자들이 현대 음악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주와 이야기 분석을 통한 음악 교육을 제안하였고, 향후 교육현장 도입을 통해 서양음악 교육의 확대를 모색하였다.

진행내용 개/폐회 | 송무경(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회장)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피아니스트의 내러티브: 그리프스(Charles T. Griffes)의 《쿠블라 칸의 환락궁》(The Pleasure-Dome of Kubla Khan)	안정아 (연세대학교)
	연주: 그리프스, 《쿠블라 칸의 환락궁》	피아노 독주: 안정아
제 2 발표	시골청년과 집시소녀의 사랑 이야기: 야나체크(Leoš Janáček)의 연가곡《어느 사라진 자의 일기》(The Diary of One Who Disappeared)	송세라 (한양대학교)
	연주: 야나체크, <어느 사라진 자의 일기>, 3번, 8번, 20번	테너: 고용준, 피아노: 서민기
제 3 발표	《첼로 솔로를 위한 10개의 프렐류드》(10 Preludes for violoncello solo)에서 들리는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S. Gubaidulina)의 음악세계	황운정 (연세대학교)
	연주: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첼로 솔로를 위한 10개의 프렐류드》	첼로 독주: 황운정



한국무용과 학회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의 역할과 과제를 이야기하고, 최근 현장에서 진행되는 유아-어린이 대상 움직임 예술교육의 실행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무용학의 관점에서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학회 회원들의 인식 확장에 도움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무용학 연구 영역의 확산으로 이어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진행내용 개회 | 박재홍(한국무용과학회 회장), 조남규(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사회 | 홍애령(한국무용과학회 총무이사)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의 역할과 과제	홍애령 (상명대학교 전임연구교수)
제 2 발표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무용 문화예술교육, 다시 보고 읽고 쓰다	강진주 (창작소 바람 대표)
제 3 발표	문화예술교육의 원천, 무용 아카이브	김도연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연구원)
제 4 발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한 유아 및 어린이 발레교육	최진수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노민혁 (서울발레시어터 공연사업팀장)
종합토론		



02-5 유관학회 세미나

한국연기 예술학회

21세기 예술과 사회의 연계성 연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예술의 새로운 위치와 역할을 진지하게 탐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텍스트와 콘텐츠의 창의성과 융합, 예술 공간의 확장, 행위자와 참여자의 탈구분, 예술의 일상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연극과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과 환경 변화를 사회학, 미학,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현실화된 유비쿼터스, 인공지능의 보편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성장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연기자의 역할과 소양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진행내용 개/폐회 | 오진호(한국연기예술학회 회장)
사회 | 강양은(청운대학교)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21세기의 예술과 사회의 연계성 연구: 연극과 영화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토론	김석범 (수원대)
제 2 발표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전망	신현주 (중원대)
	토론	박성준 (한국영상대)
제 3 발표	사회의 현상 및 변화 속 영화, 드라마-현장, 29년 연기 인생을 중심으로	김정균 (남예중, 배우)
	토론	진승현 (호서대)



한국문화 예술교육 학회

문화예술교육 점검, 탐구, 의견 제안

예술이 삶과 유리되어 있지 않고, 사회문화적 맥락 위에 예술이 성립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문화예술교육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영화, 연극, 무용, 음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주제를 탐색하고, 미래 교육과 예술정책의 방향에 대한 각 분야 상호간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진행내용 사회 | 정재형(동국대학교 교수)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음악적 모국어론 통한 코다이 유아교육의 교구 사용과 가창 지도	조흥기 ((사)한국코다이협회)
제 2 발표	초등학교 예술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유지선 (고려대학교 박사 수료)
제 3 발표	문화예술교육에서 포스트 휴먼 주제 탐구하기	박유신 (서울석관초등학교 교사,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제 4 발표	자크 랑시에르적 관점으로 본 문화예술 교육	오세준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초빙교수)
제 5 발표	문화예술적 재생공간의 예술 교육에서 나타나는 '타자'의 의미	이송하 (문화느루 예술교육 매니저/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제 6 발표	사회문화에서의 씨네마테크	최영익 (청운대학교)
제 7 발표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방향과 전망	김광중 (전국예술강사 노동조합)

종합토론



02-5 유관학회 세미나

한국예술 교육학회

예술교육의 현황과 전망

영유아 및 어린이 예술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 음악·미술교육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탐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놀이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환경과 자연미술의 교육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 교육, 공간 주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창의적 미술활동을 위한 학교 공간의 역할을 제시하는 등 융합적 성격이 강한 예술교육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민속춤인 태평무, 진도북춤 공연을 함께 감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춤의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진행내용 개회 | 현경실(한국예술교육학회 회장)

사회 | 손지현(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영미(계명대학교 교수), 윤관기(공주교육대학교 교수)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문화예술교육의 '놀이' 중심 접근 방안	조정은 교수 (조선대학교)
제 2 발표	환경, 자연미술의 교육적 특성: 영유아 및 유아 교육을 중심으로	고홍규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제 3 발표	공연: 춤, 몸으로 노래하는 음악	이미희 교수 (삼육대학교) 이예림, 김혜승 (서정춤세상)
제 4 발표	창의적 미술활동을 위한 학교 공간의 역할	최성희 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종합토론



한국교육 연극학회

연극 예술로 세상과 호흡하기-예술이 인간을 기른다: 발달론의 예술적 접근

발달론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영유아 교육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영유아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연극과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향후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진행내용 개/폐회 | 김정만(한국교육연극학회 회장)

사회 | 오은정(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 서울영화초등학교 수석교사)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기조발제	발달 성장에 있어서의 예술효용론	오은정 (서울영화초등학교 수석교사)
제 1 발표	연극 경험이 영유아 신경 발달에 끼치는 영향	장은주 (좋은문화병원 신경과학예술교육원 원장)
제 2 발표	연극적 인물과 역동적 관계 맺기: 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연극놀이	탁태옥 (아트앤플레이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소장)
제 3 발표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적 모색	이영숙 (극단 올리브와 핀콩 대표/연출)
종합토론	발제1 질의자: 김공주 (서울혁신교육 실무협의위원) 발제2 질의자: 김지윤 (부산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발제3 질의자: 이소희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겸임교수)	오은정 (서울영화초등학교 수석교사)



02-5 유관학회 세미나

한국연극 교육학회

연극예술의 창조과정과 방법론을 논문화하기 위한 형식 개발

예술 현장의 실제 작업과 실기교육의 다양한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MFA 논문 형식 개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극 실기 논문쓰기의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을 에트노세노로지(Ethnoscénologie)의 경험론적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소개하였다. 영미권 학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연극 실기논문 형식 개발 사례와 발표자 본인의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미국 사바나예술디자인대학(SCAD)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의 MFA 논문 사례를 공유하였다.

진행내용 개회 | 서충식(한국연극교육학회 회장)
사회 | 이곤(청운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교수)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연극예술 창조과정과 방법론에 대한 논문 쓰기의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 - MFA 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	나진환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교수)
	질의1	조준희 (성결대학교 연극학부교수)
제 2 발표	"연극 실기논문 형식 개발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허순자 (서울예술대학교 공연창작학부교수)
	질의2	박진태 (여주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교수)
제 3 발표	"해외 대학 연극 MFA 논문 사례 연구 - 본인의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서나영 (평택대학교 공연영상콘텐츠학과교수)
	질의3	강민호 (중앙대학교 연극학과교수)
제 4 발표	"국내 대학 연극 MFA 논문 사례 연구 - 본인의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양종욱 (배우, 한예중 MFA 졸업)
	질의4	김대현 (호서대학교 문화예술학부교수)
종합토론		



한국음악 교육공학회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공학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공학의 내용과 방법을 알아보고, 그 가치와 지향에 대해 고찰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아동을 위한 교육에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야쿠르트병 관악기 제작 실습과 합주로 시작된 발표는 음악교육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공통 주제인 통찰, 느낌, 경험에 대해 철학적으로 발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또한 창작동요의 음악적 특징 변화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동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행내용 개회 | 임원수(한국음악교육공학회 회장)
사회 | 김경태(한국음악교육공학회 학술이사), 윤성원(사무총장)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아동 문화예술교육의 음악 기제	우광혁 (한국예종) 좌장 : 김지연 (배화여대)
제 2 발표	아동을 위한 통찰 음악교육	조성기 (공주대) 좌장 : 권수미 (한국교원대)
제 3 발표	아동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느낌의 교육' 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	김경화 (서울중흥초) 좌장 : 박진홍 (동래초)
공연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김소원 (서울대) 좌장 : 김경태 (국립국악고)
제 4 발표	미적 경험의 원천으로서 몸의 유기체성	김기수 (진주교대) 좌장 : 김미숙 (상명대)
제 5 발표	아동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창작동요의 음악적 특징 변화	이지영 (상명대) 좌장 : 윤문정 (진주교대)
제 6 발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쪽쪽이"를 활용한 연속적이며 지속가능한 융합 예술교육으로의 접근	함수경·김영연 (신라대) 좌장 : 조정은 (조선대)



02-5 유관학회 세미나

한국음악 교육학회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영유아·어린이에게 적합한 음악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살펴보면서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훈련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스토리텔링과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유아 음악교육 사례 발표, 유아 교육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의 연계 방안 논의 등 음악교육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진행내용 개회 | 김용희(한국음악교육학회 회장)

사회 | 김기수(진주교육대학교), 백재연(서울교육대학교)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지역사회화 함께 하는 유아문화예술교육	강향숙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문화예술교육 겸임교수)
	토론	
제 2 발표	스토리텔링과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유아 음악교육의 방안 모색	신은지, 김민제 (서울대학교)
	토론	
제 3 발표	유·초등 연계학습 방향	이영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종합토론		



한국문화 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논하다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정책과 추진 동향, 실행 사례, 장애요인 등 정책과 현장의 두 측면에서 접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부에서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정책 소개와 이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모형 및 단계별 전략, 질적으로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는 문화 조성, 교사의 역할 등을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자생적·자발적인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 모색과 변화주도자인 교사의 실행 경험에 따른 발전단계의 유형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진행내용 환영사 | 이은적(한국문화교육학회 회장, 대구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사회 | 한수정(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최나영(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구성	내용	진행자(소속)
제 1 발표	학교-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	김혜경 (경기도교육청)
제 2 발표	지역연계를 통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강주희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제 3 발표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의 질 관리와 교사의 역할	최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토론	-	정옥희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김인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제 4 발표	교육부 학교예술교육사업 성과연구에 부처 - 2015년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학생연극회, 예술중점학교 사업을 중심으로	백미현 (KC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제 5 발표	그림책창작, 전시 및 낭독 공연을 통한 학교 -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김민화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제 6 발표	교사의 실행 경험에 따른 단계별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략 연구	박찬수 (치악초등학교)
토론	-	박정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현경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0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



0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

일시 2019.5.23(목)-5.25(토)
장소 서울 및 지역 문화공간 등
대상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강사, 기획자, 예비인력 등)

한국박물관협회,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및 예비인력 등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서울에서는 박물관·미술관 종사자 및 예비 학예인력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교육의 의의와 정책, 다양한 실행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 부산, 인천에서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초대된 해외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지역의 영유아기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에서는 울프트랩의 티칭 아티스트들과 함께 연극, 음악, 춤의 요소로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 방법을 체험하였으며, 부산에서는 디 아크 유아예술교육 레지던시 아티스트인 루시 힐과 함께 재료 중심 예술교육의 철학과 방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일상의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조형 활동을 경험하였다. 인천에서는 아동·청소년극 전문가 로베르토 프라베티가 영유아를 위한 연극에서 '시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영유아와 매개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움직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일시	협력기관	과정명	교육강사	장소
5.23(목) 10:00-18:00	한국 박물관 협회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입문과정 <유지엄, 문화예술교육으로 다가가기>	김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 윤태석(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장) 호중훈(만화·애니메이션 예술강사) 구선모(서상초등학교 교사) 김승익,박경은,이태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5.23(목)-5.24(금) 10:00-17:00	울산 문화예술 교육지원 센터	유아기 예술교육의 마중물 (Early Arts Learning Institute)	아쿠아코야테-테이트(Akua Kouyate-Tate) 울프트랩 부대표 텔렌 테리 토드(Terlene Terry-Todd) 수석 티칭 아티스트 크리스티나 파렐(Christina Farrell) 수석 티칭 아티스트	울산 아르고공연 연습센터
5.24(금) 10:00-17:00	부산 문화예술 교육지원 센터	아이들의 예술 경험을 위한 시각예술 창작 워크숍 (Materials-led Art Education Practice for Early Childhood and Beyond)	루시 힐(Lucy Hill) 디 아크 유아 예술교육 레지던시 아티스트	부산 한성1918
5.25(토) 10:00-17:00	인천 문화예술 교육지원 센터	눈으로 말해요! 아동극과 영유아 (Telling With Your Eyes. The Theatre And The Very Young)	로베르토 프라베티(Roberto Frabetti) 라 바라카 극단 예술감독	인천공연 예술연습공간

0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

전문인력 연수 운영 결과

5.23(목) [서울]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입문과정 <뮤지엄, 문화예술교육으로 다가가기>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미와 다양한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술자료 아카이빙과 문화예술교육 간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고, 각 분반별로 나누어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이해, 학예사 자격제도의 이해,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사례 공유, 전시 기획 큐레이터와 함께 전시 관람 등 참여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선택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서울]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입문과정 <뮤지엄, 문화예술교육으로 다가가기>

5.23(목)-5.24(금) [울산] 유아기 예술교육의 마중물

울프트랩(Wolf Trap)의 주도 하에 영유아기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들이 참여하여 연극, 음악, 춤의 요소로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예술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방식을 체험하였다. 실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움직임 활동 학습 후, 학습대상별 접근법 및 교육법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책을 활용한 아이들의 자발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영유아와 소통하는 과정을 함께 논의하였다.



[울산] 유아기 예술교육의 마중물

5.24(금) [부산] 아이들의 예술 경험을 위한 시각예술 창작 워크숍

강사로 참여한 루시 힐(Lucy Hill) 디아크 유아예술교육 레지던시 아티스트의 예술 철학과 교육방식을 공유한 후, 아이들의 예술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기초로서 일상 속 오브제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아이들의 예술경험을 위해 기획된 다양한 재료(재활용 종이, 플라스틱, 사진 등)를 활용한 창의적 조형 활동을 경험하였다.



[부산] 아이들의 예술 경험을 위한 시각예술 창작 워크숍

5.25(토) [인천] 눈으로 말해요! 아동극과 영유아

영유아극 전문가 로베르토 프라베티(Roberto Frabetti)가 강사로 참여하여 영유아와 아동극의 긴밀한 관계와 '시선(gaze)'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시선은 영유아의 인지력을 강화하고 상호 관계 속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된다고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체험하는 워크숍을 통해 유아와 매개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천] 눈으로 말해요! 아동극과 영유아

04 지역별 프로그램



04 지역별 프로그램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아, 5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 세미나, 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참여대상
인천	인천 평생교육x 문화예술교육 토론회 <전환의 시간, 미래를 위한 교육>	5.22(수) 14:00-18:00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인천시민
	문화예술교육 축제 <꿀벌의 모험>	5.25(토) 11:00-17:00	중앙공원 조각원지구	
울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국제세미나	5.23(목) 13:30-17:00	울산광역시의회 3층 대강당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일반시민
경기	문화예술교육축제 <뭐든지 예술놀이터>	5.25(토) 10:00-16:00	경기도박물관 앞마당	유아,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 지원사업 운영단체
세종	문화예술교육축제 <오감소풍>	5.25(토) 11:00-17:00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	일반시민
제주	문화예술교육축제 <노는게 예술이네!>	5.26(일) 11:00-16:00	산지천 갤러리 일대 및 산짓물공원	일반시민

04 지역별 프로그램

인천

인천 평생교육x문화예술교육 토론회 <전환의 시간, 미래를 위한 교육>
문화예술교육 축제 <꿀벌의 모험>

- 날짜 2019.5.22(수), 5.25(토)
- 장소 중앙공원 조각원지구,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등
- 대상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인천시민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내 예술단체들과 함께 '자발적인 놀이터'를 컨셉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들이 주말 하루 동안 다양한 놀이와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축제<꿀벌의 모험>을 개최하였다. 또한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유아와 노년기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울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국제세미나

- 날짜 2019.5.23(목)
- 장소 울산광역시의회 3층 대강당
- 대상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일반시민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생애주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울산발전연구원 김상우 박사의 '울산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논의하였다. 유아와 청·장년 문화예술교육은 박초아 울산음악종합지원센터장, 박도빈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대표,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가 각 사례의 발표를 맡았고,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핀란드 헬싱키의 카이사 케투넨 아난탈로아트센터감독, 노년 문화예술교육은 요시노 사츠키 일본아이치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04 지역별 프로그램

경기

문화예술교육축제 <뭐든지 예술놀이터>

날짜 2019.5.25(토)
장소 경기도박물관 앞마당 (경기도 용인시)
대상 유아·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 지원사업 운영단체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용인에 위치한 경기도 박물관 광장에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교육축제 <뭐든지 예술놀이터>를 개최하였다.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단체 15팀의 참여로 뮤지컬, 발레, 공공미술 등을 체험하는 '뭐든지 예술학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서커스 공연과 로봇로드쇼, 놀면서 역사를 배우는 '뭐든지 배움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부스를 설치해 시민 및 매개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종

문화예술교육축제 <오감소풍>

날짜 2019.5.25(토)
장소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 일원
대상 일반시민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온 가족이 함께 다양각색의 문화예술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축제 <오감소풍>을 마련하였다. 지역 내 26개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참여해 진행하는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과 풍물놀이, 오케스트라, 한복패션쇼, 커뮤니티 댄스 등의 공연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시민들 누구나 작가가 되어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시민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그램 '스트링아트'도 올해 새롭게 진행하였다.



04 지역별 프로그램

제주

문화예술교육축제 <노는게 예술이네!>

날짜 2019.5.26(일)

장소 산지천 갤러리 일대 및 산짓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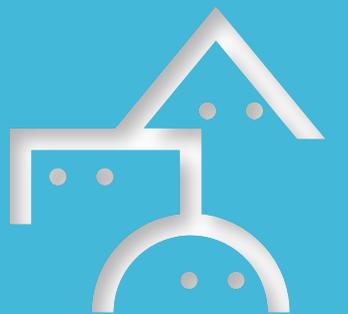
대상 일반시민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열었다. 타악과 춤 공연을 시작으로 공예, 그림, 연극, 전통놀이, 생태 체험, 퍼레이드, 사진전 등 지역 내 예술단체가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문화예술단체도 축제에 참여하여 장애인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4. 대외홍보

01. 언론홍보
02. 온라인홍보
03. 오프라인홍보



01 언론홍보

보도시기별 게재현황

기간 | 2019.5.3(금)-5.27(월)

홍보실적 | 총 120건

분류	구분	게재 건수
사전	방송 1건, 심층 3건, 일반 23건	27
	행사 중	방송 1건, 심층 10건, 일반 68건
사후	심층 6건, 일반 8건	14
	총계	120

유형별 게재현황

분류	구분	게재 건수
일간지	심층 (취재 및 기획 기사)	19
	단신 보도	8
방송	뉴스 보도 (단신, 취재, 영상)	2
	인터뷰	-
온라인	심층 (현장 취재 및 인터뷰)	9
	단신 보도	82
총계		120

주요내용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이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진행된 바, 주제 및 행사 정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자장가 프로젝트 기획취재, 해외 초청·연계 기관 소개 기사, 전문가 기고 등의 기획기사를 통해 다각적인 사전 홍보를 진행하였다.

개막식과 국제심포지엄 등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주요 언론사 및 보도국 기자의 참석을 유도하였고, 행사 당일 사진보도자료, 현장 보도자료 등을 적극 배포하여 생동감있는 현장의 모습과 행사에서 논의된 심도 깊은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신하였다.

또한 행사 종료 후, 성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일자별 현장 상황과 행사 전반의 성과를 안내하고자 하였다.

주요 보도 기사

[해외 초청·연계 기관 시리즈 기획기사①] 뉴스1 / 2019.5.12(일)

이 글은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에 대해 소개하며, '내 아이 위한 자장가...키네기졸 자장가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자장가 프로젝트의 취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키네기졸은 영유아를 위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자장가 프로젝트의 취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키네기졸은 영유아를 위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자장가 프로젝트의 취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초청·연계 기관 시리즈 기획기사②] 뉴스1 / 2019.5.12(일)

이 글은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에 대해 소개하며, '영유아기 통합적 예술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울프트랩 재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울프트랩 재단은 영유아 예술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자장가 프로젝트의 취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초청·연계 기관 시리즈 기획기사③] 뉴스1 / 2019.5.12(일)

이 글은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에 대해 소개하며, '유럽 최초의 어린이 예술교육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이 센터의 설립 배경과 목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센터는 영유아 예술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자장가 프로젝트의 취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언론홍보

주요 보도 기사 [자장가 프로젝트 기획취재] 한국일보 / 2019.5.21(화)

한국일보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A29면 2쪽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장가 만들기

‘세상이 참 좋아 우리 생애와- 영대기 애가 있어- 영대기 애가 있어-’
다수락 선동의 노래를 구미 일하는 복소근과 김지연이 부른다. 7개월 된 아들 장영이를 품 안아 노래를 부르는 복소근과 김지연은 ‘자장가 프로젝트’의 주인공이다.

자장가 프로젝트는 ‘자장가 재발견’을 주제로 17일 서울 용인문화센터(오호대)에서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와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오호대)를 개최한다.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에서는 자장가 재발견을 주제로 17일 서울 용인문화센터(오호대)에서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와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오호대)를 개최한다.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에서는 자장가 재발견을 주제로 17일 서울 용인문화센터(오호대)에서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와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오호대)를 개최한다.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에서는 자장가 재발견을 주제로 17일 서울 용인문화센터(오호대)에서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와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오호대)를 개최한다.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에서는 자장가 재발견을 주제로 17일 서울 용인문화센터(오호대)에서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와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오호대)를 개최한다.

[전문가 기고] 헤럴드경제 / 2019.5.22(수)

헤럴드경제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10면 10쪽

아이 존재를 품는 '기쁨의 공화국'

자장가 프로젝트는 '자장가 재발견'을 주제로 17일 서울 용인문화센터(오호대)에서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와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오호대)를 개최한다.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에서는 자장가 재발견을 주제로 17일 서울 용인문화센터(오호대)에서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와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오호대)를 개최한다.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에서는 자장가 재발견을 주제로 17일 서울 용인문화센터(오호대)에서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와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오호대)를 개최한다.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에서는 자장가 재발견을 주제로 17일 서울 용인문화센터(오호대)에서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와 자장가 재발견 콘서트(오호대)를 개최한다.

주요 보도 기사 [해의 초청-연사 인터뷰-아쿠아 코야테 테이트] 한국일보 / 2019.5.22(수)

한국일보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A29면 2쪽

연극하며 과학 원리 배우고, 춤추며 수학 문제 풀어요

“연극하며 과학 원리 배우고, 춤추며 수학 문제 풀어요”
아쿠아 코야테 테이트는 연극을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고, 춤추며 수학 문제를 풀어요. 테이트는 연극을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고, 춤추며 수학 문제를 풀어요. 테이트는 연극을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고, 춤추며 수학 문제를 풀어요.

테이트는 연극을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고, 춤추며 수학 문제를 풀어요. 테이트는 연극을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고, 춤추며 수학 문제를 풀어요. 테이트는 연극을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고, 춤추며 수학 문제를 풀어요.

[해의 초청-연사 인터뷰-에 슈펩] 한국일보 / 2019.5.27(월)

한국일보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A29면 2쪽

"어릴 때 미술관이 재밌으면 커서도 영화관 거들 찾죠"

"어릴 때 미술관이 재밌으면 커서도 영화관 거들 찾죠"
에 슈펩은 어릴 때 미술관에 재밌어서 커서도 영화관에 거들 찾죠. 에 슈펩은 어릴 때 미술관에 재밌어서 커서도 영화관에 거들 찾죠. 에 슈펩은 어릴 때 미술관에 재밌어서 커서도 영화관에 거들 찾죠.

에 슈펩은 어릴 때 미술관에 재밌어서 커서도 영화관에 거들 찾죠. 에 슈펩은 어릴 때 미술관에 재밌어서 커서도 영화관에 거들 찾죠. 에 슈펩은 어릴 때 미술관에 재밌어서 커서도 영화관에 거들 찾죠.

[해의 초청-연사 인터뷰-로베르토 프라베티] 한국일보 / 2019.5.28(화)

한국일보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A29면 2쪽

"연극은 가장 인간적인 예술... 아이들이 세상과 교감하는 법 배우죠"

"연극은 가장 인간적인 예술... 아이들이 세상과 교감하는 법 배우죠"
로베르토 프라베티는 연극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죠. 로베르토 프라베티는 연극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죠. 로베르토 프라베티는 연극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죠.

로베르토 프라베티는 연극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죠. 로베르토 프라베티는 연극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죠. 로베르토 프라베티는 연극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죠.

01 언론홍보

방송보도

[뉴스 자막 홍보] MBN뉴스 / 2019.5.18(토)~19(일)



[현장 취재] MBN뉴스 / 2019.5.23(목)



현장·사진보도

뉴스1 / 2019.5.22(수)



연합뉴스 / 2019.5.22(수)



뉴스1 / 2019.5.22(수)



02 온라인홍보

페이스북 콘텐츠 게재현황

분류	게재건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총계
사전	4	8	2	14
행사 중	3	16	1	20
사후	-	1	-	1
총계	7	25	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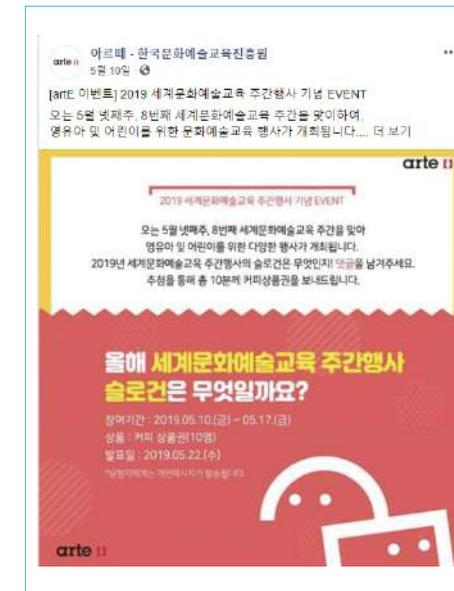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관련 정보, 행사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기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추진하였으며, 네이버 블로그 콘텐츠는 네이버판과 연계, 네이버 모바일과 PC 메인 화면에 다수 노출시켜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타이포그래피 형식의 사전 홍보 영상 등 다수의 영상을 제작하여 기관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채널을 기반으로 노출·확산하였으며, 온라인 상에서 행사 개막식, 국제심포지엄 등 주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

페이스북 주요 게시물

이벤트



전체 프로그램 카드뉴스



지역별 프로그램 소개



현장사진



02 온라인홍보

유튜브 주요 게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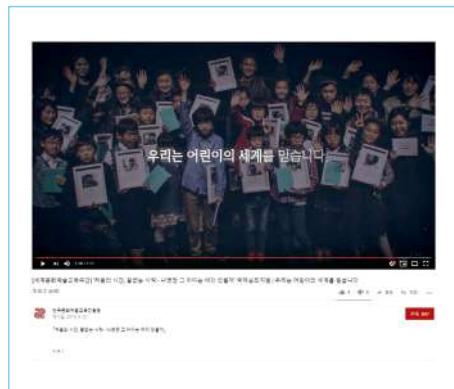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사전 홍보영상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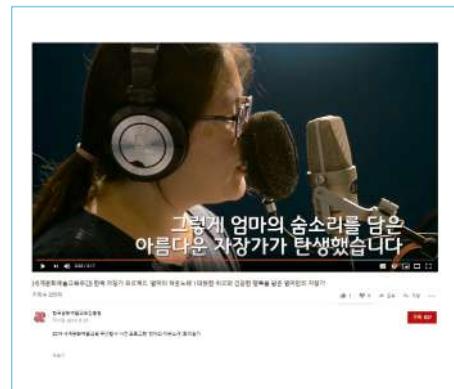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사전 홍보영상②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우리는 어린이의 세계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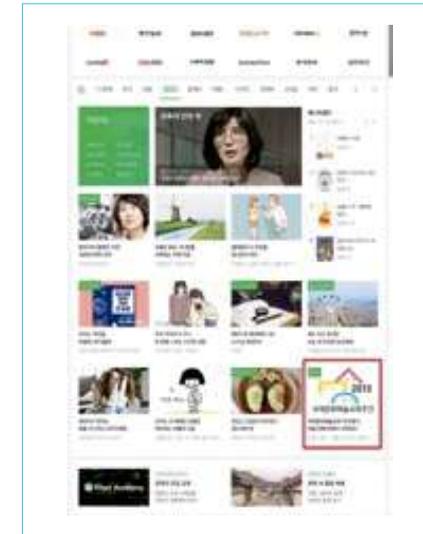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포털 및 블로그 주요 게시물

책문화판 PC 메인 노출
2019.5.22(수)-5.24(금)



책문화판 모바일 메인 노출
2019.5.12(일)-5.13(월) / 5.19(일)-5.20(월)



공연전시판 모바일 메인 노출
2019.5.22(수)-5.24(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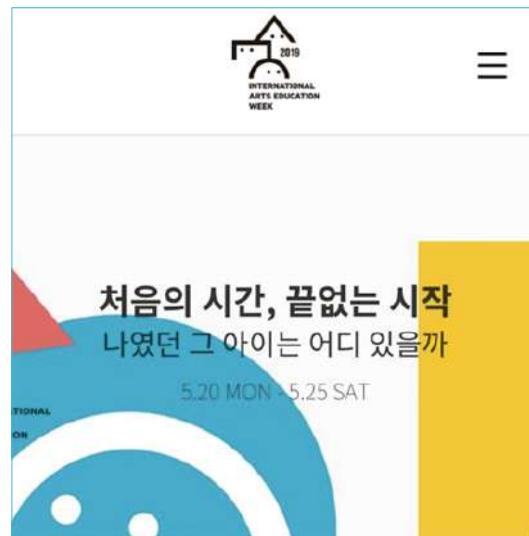
02 온라인홍보

홈페이지 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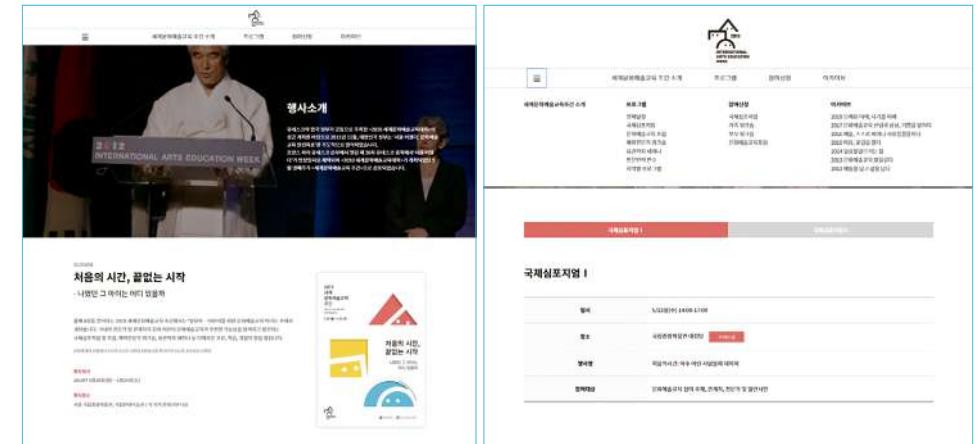
Web UI



Mobile UI



Web UI



Mobile 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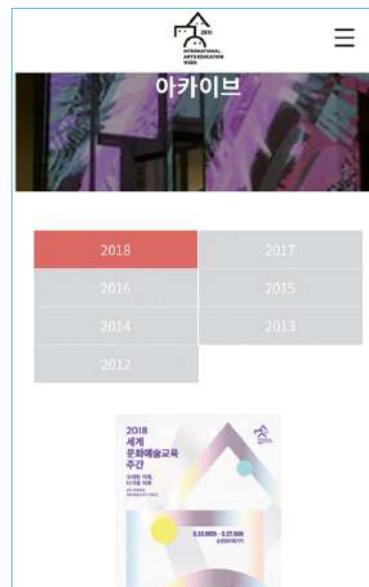
02 온라인홍보

홈페이지 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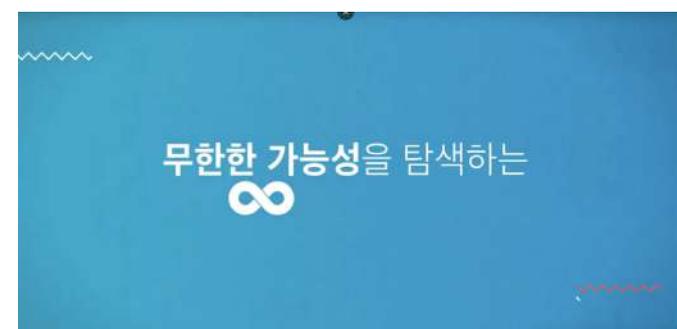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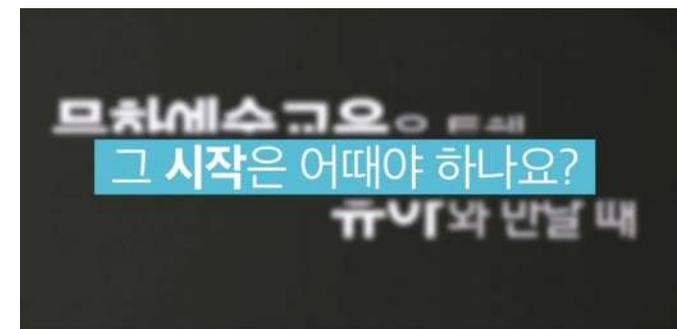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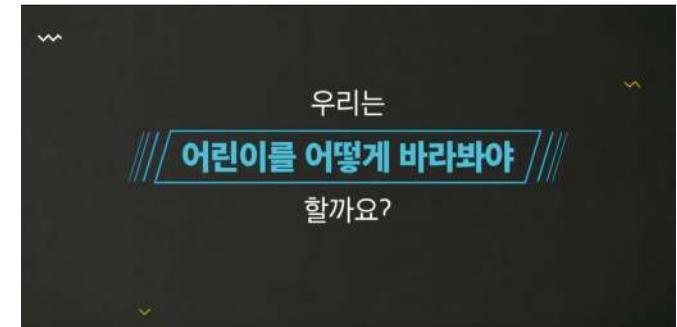
Web UI



Mobile 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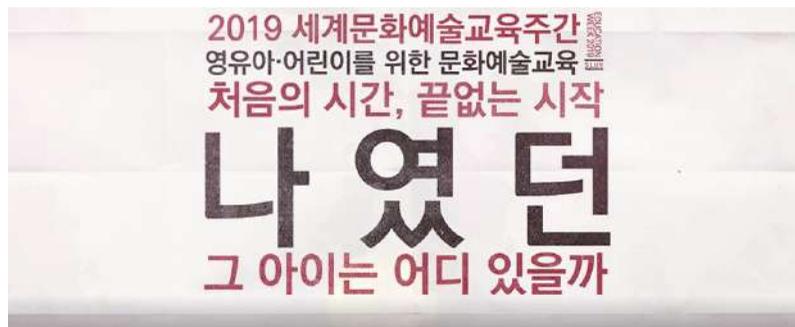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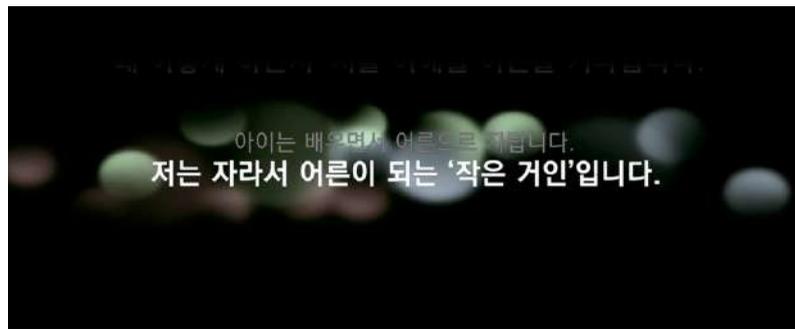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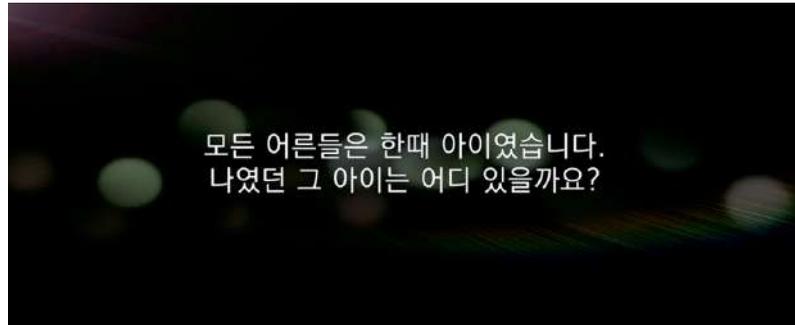


티저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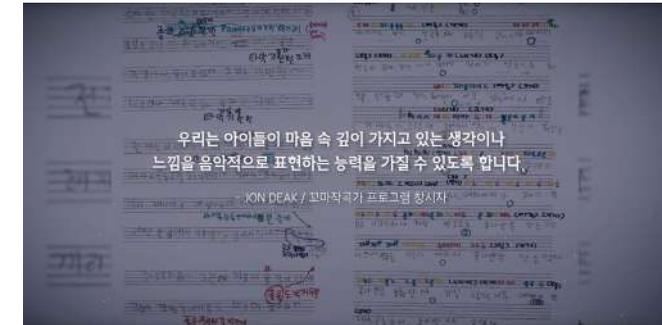


02 온라인홍보

티저영상



홍보영상



03 오프라인홍보

포스터

통합



국제심포지엄 I



국제심포지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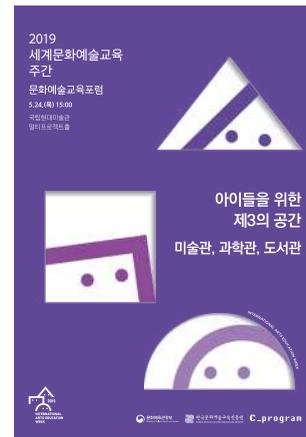
해외전문가 워크숍



유관학회 세미나



문화예술교육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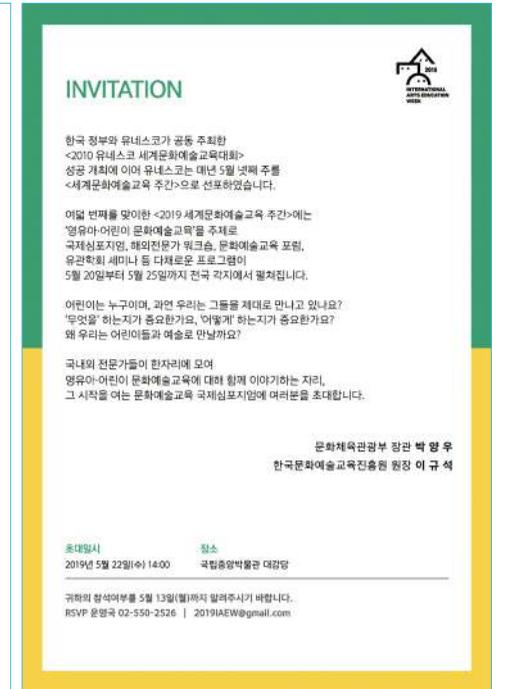


초청장

앞면



뒷면



봉투



03 오프라인홍보

리플렛

통합 리플렛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통합 리플렛. 상단에는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 - 나왔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중앙에는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세미나'의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주요 행사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하단에는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후원 기관과 후원자를 소개합니다.

리플렛

유관학회 세미나 리플렛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유관학회 세미나 리플렛. 세미나의 목적과 목적을 소개하고, 세미나의 주요 내용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세미나의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세미나의 후원 기관과 후원자를 소개합니다.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리플렛의 세 가지 버전. 각각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목적과 의미를 소개하고,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주요 행사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리플렛의 디자인은 밝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유관학회 세미나 리플렛의 세 가지 버전. 각각 세미나의 목적과 목적을 소개하고, 세미나의 주요 내용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리플렛의 디자인은 밝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03 오프라인홍보

리플렛

워크숍 리플렛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북



국제심포지엄 II 아포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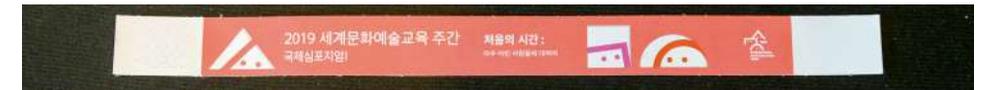


기념품



종이팔찌

국제심포지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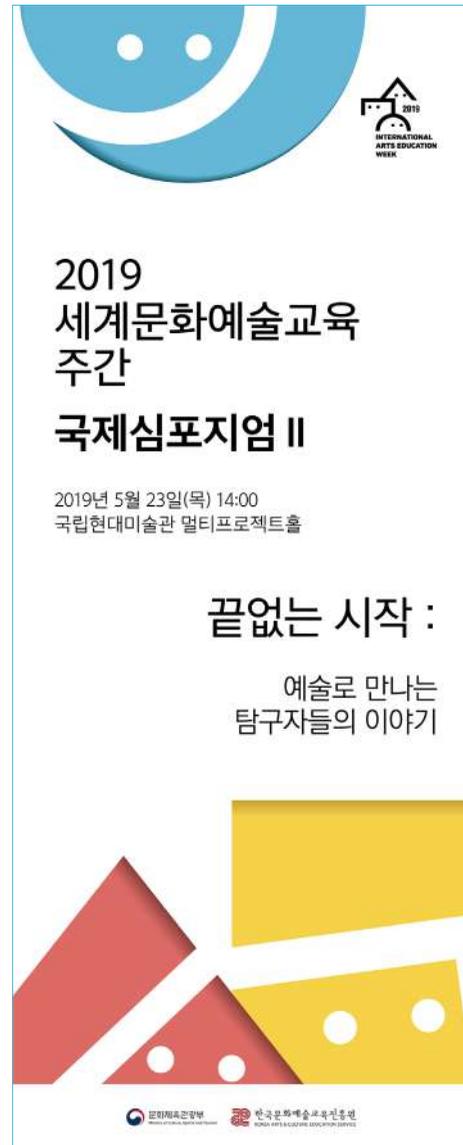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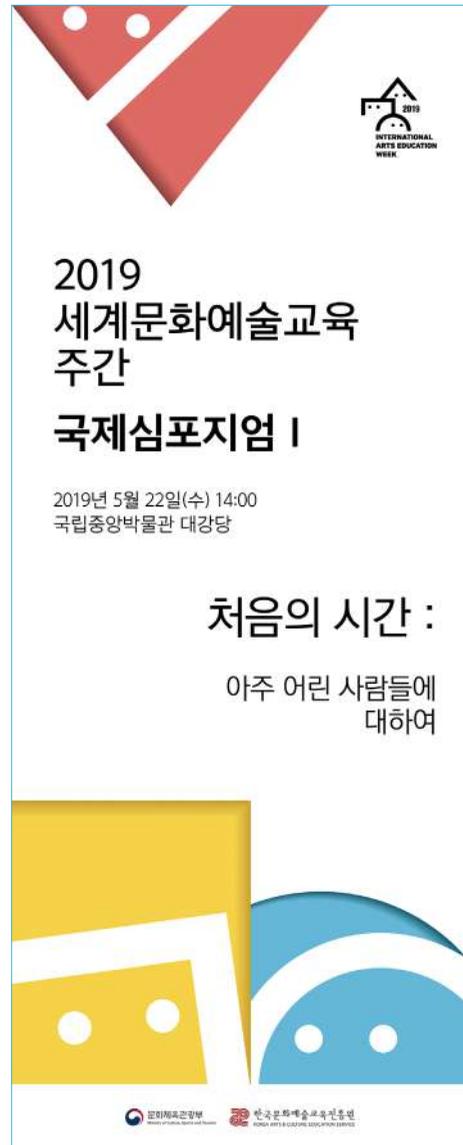


국제심포지엄 II



03 오프라인홍보

가로등 배너



가로등 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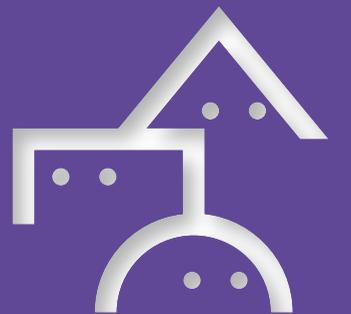
종로구: 동십자각-원남사거리 구간



5. 별첨

01. 설문조사 결과

02. 참여한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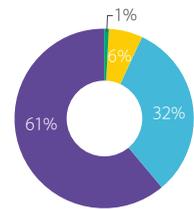
01 설문조사 결과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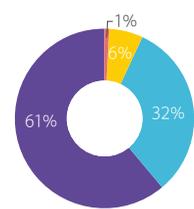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중복 답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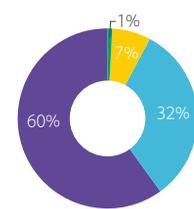
국제심포지엄 내용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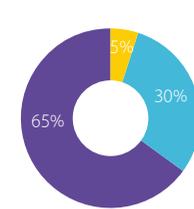
국제심포지엄이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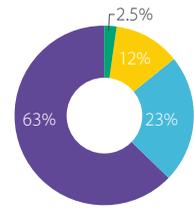
국제심포지엄 내용이 흥미를 유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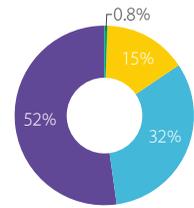
초청연사에 대해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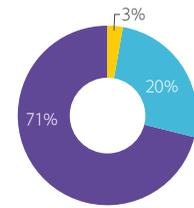
행사 공간에 대해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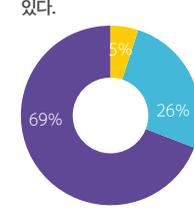
안내, 주차 등 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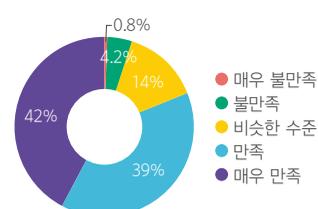
차후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에 또 참여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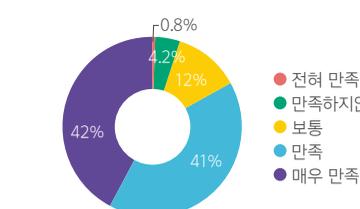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타 유사 행사와 비교해 오늘 참여한 '국제심포지엄 I'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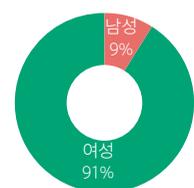


오늘 참여한 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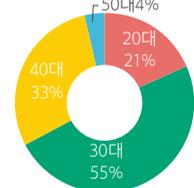


*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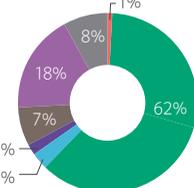
1) 성별



2) 나이



3) 직업



참여자 의견

- 의견 1) 인생과정의 모든 순간에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 의견 2)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 교육적으로 흥미로웠으며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었음.
- 의견 3) 시간이 나름대로 잘 지켜졌고, 연사들의 강연 내용이 질이 높고, 사례를 넘어선 꽤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해주었음.
- 의견 4) 강연자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강연자의 시선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의 다양성이 좋았다.
- 의견 5)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의견 6)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제시도해보았으면 어땠을까.
- 의견 7) 영유아의 예술적 경험의 중요성을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 의견 8) 외국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견 9)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구성한 콘텐츠가 좋았습니다.
- 의견 10) 모데레이터 분의 훌륭한 진행과 각기 다양하고 흥미로운 국제심포지엄 참여자들의 강의가 만족스러웠다.
- 의견 11) 각 내용에 대해 짧은 시간으로 깊은 통찰을 못한 것 같아 아쉬움.
- 의견 12) 음악, 시각 모두 훌륭하여 깨어난 감각으로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 의견 13)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강연이 도움이 되었다.
- 의견 14) 국가 공공기관 담당자의 연계 및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의견 15) 행사성격과 발제자가 잘 맞아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만큼 유익했습니다.
- 의견 16) 대강당에서 이용했던 조명, 무대, 영상 모두 잘 활용되고 꾸며진 거 같습니다. 초청 연사들도 대체로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방식도 미리 받아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의견 17) 밋밋할 수 있는 무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세심한 기획력을 엿볼 수 있었고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음.
- 의견 18) 질의응답시간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 의견 19) 세계문화예술의 경험을 다양하게 심포지엄에서 느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 의견 20) 국제 심포지엄의 규모가 아니더라도 자주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01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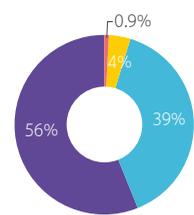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I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중복 답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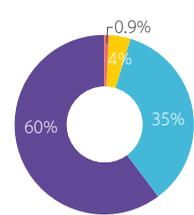


국제심포지엄이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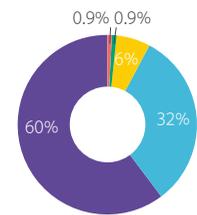
국제심포지엄 내용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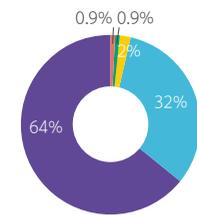
국제심포지엄이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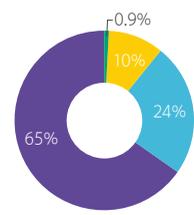
국제심포지엄 내용이 흥미를 유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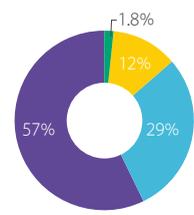
초청연사에 대해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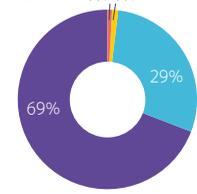
행사 공간에 대해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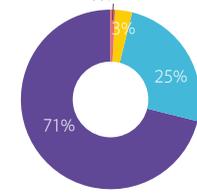
안내, 주차 등 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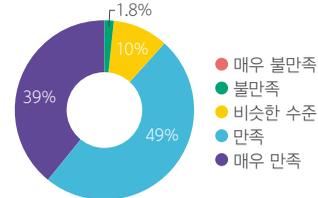
차후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에 또 참여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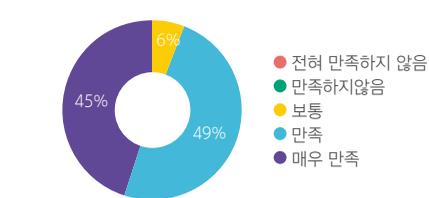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타 유사 행사와 비교해 오늘 참여한 '국제심포지엄 II'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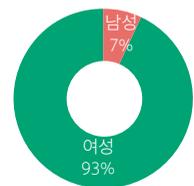


오늘 참여한 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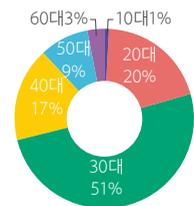


※ 인적사항

1) 성별



2) 나이



3)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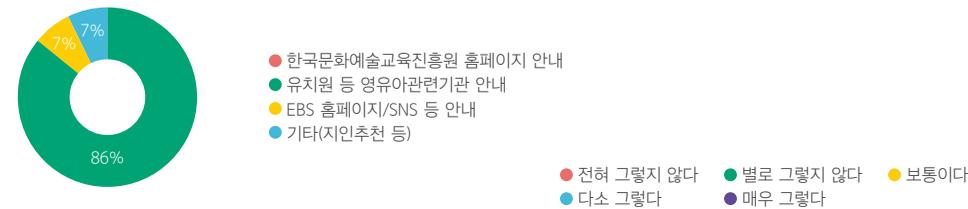
참여자 의견

- 의견 1) 감사합니다. 예술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장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더욱 이끌어 내서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 의견 2)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연사를 섭외해 진행한 점이 심포지엄을 다채롭게 했네요.
- 의견 3) 초청 연사의 경험과 다양함이 매우 잘 구성되었고,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성 높은 주제와 내용으로 운영진의 많은 고민과 준비가 돋보였습니다.
- 의견 4) 최신의 기술, 최고의 평을 들을만한 기관, 학교 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나라의 이야기도 들을 기회가 생겼으면.
- 의견 5) 실제 심포지엄이 이루어지던 공간 구성과 교육공간으로의 안내를 유도하는 방식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 의견 6) 참여자와 함께여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어 좋았습니다.
- 의견 7)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포럼인데 전반적으로 미술 분야 중심이라 아쉽습니다. 움직임과, 음악, 그리고 미술이 다양하게 있었다면 더 좋았을 듯합니다.
- 의견 8) 말미꿈의 진행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라 좋았습니다. 연사 선정이 좋았고, 연사들이 행사 운영을 명확히 인식하고 발표 준비를 적합하게 해와서 지루하지 않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의견 9) 외국의 사례를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 10) 초청연사 비중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개인 사립 단체 및 미술관의 사례 공유가 더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의견 11) 내용이 새롭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이었습니다.
- 의견 12) 대부분의 발제가 연극, 미술, 공연 등 '예술'에 기반을 둔 어린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문화' 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의견 13) 실제적인 내용과 사례들이 소개되고 Q&A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궁금해 한 것들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의견 14) 장소가 쾌적하고 넓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초청연사들의 내용이 비슷하지 않아 좋았고, 실무자 입장에서 적용 가능한 팁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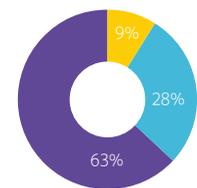
01 설문조사 결과

가족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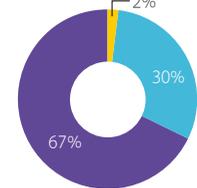
이번 해외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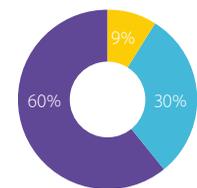
해외전문가 워크숍 내용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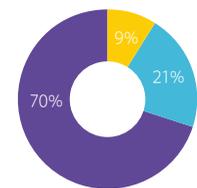
해외전문가 워크숍이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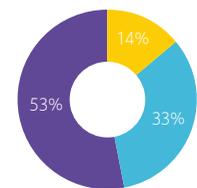
해외전문가 워크숍 내용이 흥미를 유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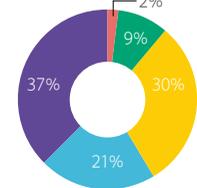
초청 해외전문가에 대해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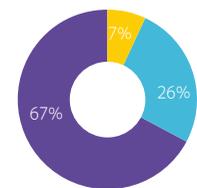
행사 공간에 대해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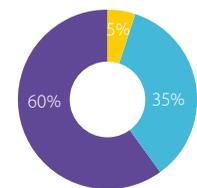
안내, 주차 등 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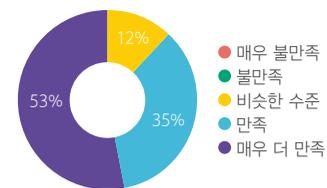
차후 문화예술교육 해외전문가 워크숍에 또 참여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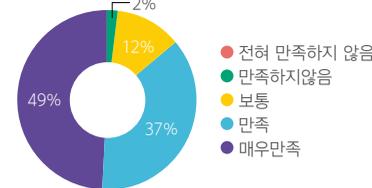
해외전문가 워크숍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타 유사 행사와 비교해 오늘 참여한 '해외전문가 워크숍'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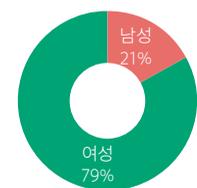


오늘 참여한 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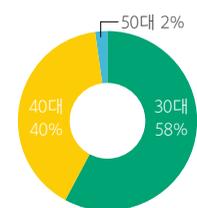


※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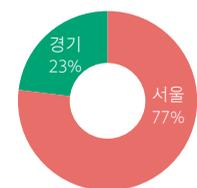
1) 성별



2) 나이



3)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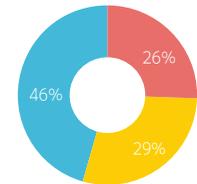
참여자 의견

- 의견 1) 아이와 함께 호흡하며 어린이와 같은 시선으로 즐기고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 의견 2) 사소하고 작은 놀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행된다면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의견 3) 활용방법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가정에서도 유익한 놀이가 될 것 같아요.
- 의견 4) 각 섹션 테마를 가지고 천천히 유도함이 좋은 거 같습니다. 2시간 연속 진행으로 아이들이 다소 지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break time 가지면 아이들이 계속 집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의견 5) 즐거웠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작은 동작과 큰 동작, 그리고 음악, 비트가 있어 소통이 되어 즐겁습니다.
- 의견 6) 새로웠고 아이의 적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에너지 넘치는 강사님들 덕분에 힘차게 할 수 있었다.
- 의견 7) Green, Blue 등의 언어 사용 말고, 컬러카드 등을 활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 의견 8) 초반에 약간 어색한 면이 있어서 쑥스러웠지만 친절하고 상냥하게, 재밌게 진행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 의견 9) 연극놀이(드라마틱 플레이, 무브먼트 등)를 국내에선 주로 유·초등 대상이었는데, 영유아(3-6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는데, 좀 더 영유아에 집중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 의견 10) 자유로우면서도 함께 아이들이 활동하며 규칙도 배우고 내용도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 의견 11) 행사 전에 프로그램이 아이가 참여할만한 동작들인지 여쭙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유선상 소아마비로 움직임이 자유롭게 못하다 말씀드렸는데 다소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강사 분들께서 challenge 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 의견 12) 아이가 늘 바쁘게 움직이고 쉬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쉬는 법도 배우게 되어 좋았습니다.
- 의견 13) 연령에 따라 2시간이 다소 버거울 수도, 5세 정도는 1시간-1시간 30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의견 14) EBS 공간이 넓고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조명이 너무 밝고 관찰하는 분위기의 자리가 아이들에게 조금 덜 편안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연광이 들어오는 편안한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 의견 15)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장소, 사람들과 익숙해질 수 있는 워밍업 시간이 있다면, 더욱 집중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진행자 분들 정말 감사했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의견 16)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친절한... 보여주기가 아닌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너무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01 설문조사 결과

부모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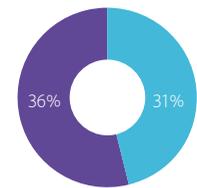
이번 해외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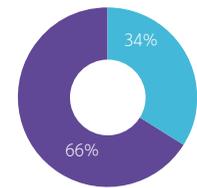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 유치원 등 영유아관련기관 안내
- EBS 홈페이지/SNS 등 안내
- 기타(지인추천 등)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다소 그렇다
-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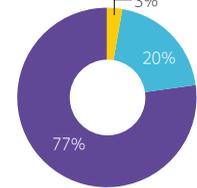
해외전문가 워크숍 내용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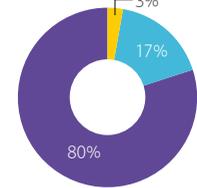
해외전문가 워크숍이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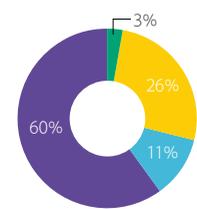
해외전문가 워크숍 내용이 흥미를 유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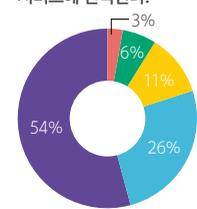
초청 해외전문가에 대해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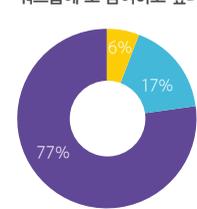
행사 공간에 대해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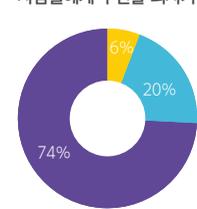
안내, 주차 등 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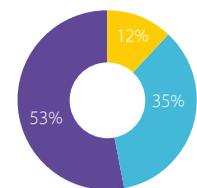
차후 문화예술교육 해외전문가 워크숍에 또 참여하고 싶다.



해외전문가 워크숍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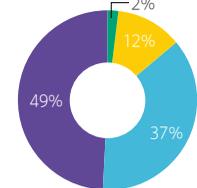


타 유사 행사와 비교해 오늘 참여한 '해외전문가 워크숍'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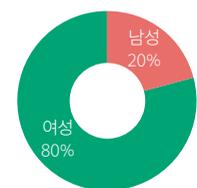
오늘 참여한 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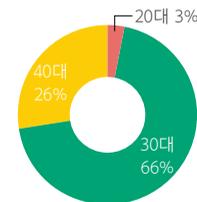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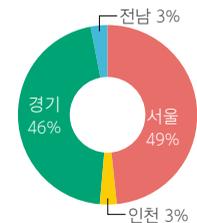
1) 성별



2) 나이



3) 거주지역



참여자 의견

- 의견 1) 많은 도움이 되고, 내면과 실체를 같이 들여다보며 치유 받는 경험이었습니다. 영유아들도 연극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고,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 의견 2) 매우 만족한다. 전반 1시간 동안, 실제 영유아들이 참석한 워크숍을 볼 수 있었고, 후반 시간 동안은 실제 워크숍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강연은 심지어 내내 질문에 열려있었다. 참 감사하다.
- 의견 3) 어린 아이들과도 교감할 수 있는 연극적인 행위들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네요. 꼭 아이들과 해보고 싶네요.
- 의견 4) 아기를 데리고 참석한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 의견 5) 두 시간 동안 많은 풍성한 느낌,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녀양육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의견 6) 새로운 방식의 커리큘럼을 접할 수 있어 매우 좋은 기회였다.
- 의견 7) 영유아 워크숍이 국내에선 보기 힘들거나 전무한데 다음엔 꼭 로베르토의 영유아 워크숍 기획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 의견 8)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즐겁고 행복한 워크숍이었습니다.
- 의견 9) 워크숍 시간이 짧아서 아쉬움.
- 의견 10) 생생한 해외사례와 워크숍이 결합되어 좋았습니다. 강사가 너무 좋았어요.
- 의견 11) 강사와 친밀하게 대화 및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음.
- 의견 12) Q and A에 더 많은 시간 부탁드립니다.
- 의견 13)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이의 흥미 유발이라든지, 교육적인 tip을 많이 얻어갑니다.
- 의견 14) 사전에 준비물 등을 준비하더라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
- 의견 15) 해외의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02 참여하신 분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김용삼 제1차관
예술정책관	김성일 국장	
문화예술교육과	최종철 과장, 권향연 사무관, 김미라 사무관, 박호진 사무관, 김지현 주무관, 박용서 주무관, 박청희 주무관, 윤지혜 주무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규석 원장
교육기반본부	김자현 본부장	
국제협력팀	김민지 대리, 양혜진 주임, 김가영 주임, 김정현 주임, 고이라 주임, 한미소 주임, 이현민 주임, 박은형 주임, 김규림 주임, 이수림 인턴	
교육R&D팀	임선영 팀장, 김준호 주임	
교육연수센터	김주리 팀장, 이초록 주임, 이혜중 주임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

처음의 시간 :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 대하여	
특별연설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프닝 공연	카네기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모더레이터	남인우 (극단 북새통)
발제자	최영애 (한국예술종합학교) 로베르토 프라베티 (라 바라카 극단) 아쿠아 코아테-테이트 (울프트랩) 마이크 더튼 (톤코하우스)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II

끝없는 시작 : 예술로 만나는 탐구자들의 이야기	
모더레이터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발제자	루시 힐 (디 아크 어린이문화센터) 예 슈팡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캣 박스 (테이트 미술관) 황지영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예술교육 포럼

아이들을 위한 제 3의 공간 -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협력	C-program
진행	신혜미 (C-program)
발제자	김이삭 (헬로우뮤지움)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박영숙 (느티나무 도서관)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가족워크숍] 땅으로바다로!예술의 즐거움	
협력	EBS,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초청단체	울프트랩 (아쿠아 코아테-테이트, 텔렌 테리 토드, 크리스티나 파렐)
[가족워크숍] 땅으로바다로!예술의 즐거움	
협력	ZamyGo
초청단체	톤코하우스 (마이크 더튼)
[부모워크숍] 어린이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 예술, 상상력, 그리고 몸	
협력	EBS
초청전문가	로베르토 프라베티 (라 바라카 극단)

유관학회 세미나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개회	최희아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회장)
발제자	유민화 (마음공간심리치료연구소 부소장) 남희경 (한국예술심리치료연구소 소장) 구자윤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치료사)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개회	박지원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장)
발제자	정환호 박사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최진호 박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박지원 박사 (나사렛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토론자	추상희 박사원생 (중앙대학교 음악학 박사과정) 이민지 박사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강사) 최영미 박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폐회	최진호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사)한국영화교육학회	
개회	영화교육학회장
사회	민경원 (순천향대) 진승현 (호서대)
발제자	이아람찬 (세종대) 박명호 (예술감사/ 미디어교사) 구상범 (한국영상대) 홍재웅 (한국외국어대)
토론자	장민용 (서경대) 최종한 (세명대) 류 훈 (성결대) 고동우 (호서대)

02 참여하신 분들

유관학회 세미나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개회	송무경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회장)
발제자	안정아 (연세대학교) 송세라 (한양대학교) 황윤정 (연세대학교)
연주자	피아노 독주: 안정아 테너: 고응준, 피아노: 서민기 첼로 독주: 황윤정
폐회	송무경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회장)
한국무용과학회	
개회	박재홍 (한국무용과학회 회장)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사회	홍애령 (한국무용과학회 총무이사)
발제자	홍애령 (상명대학교 전임연구교수) 강진주 (창작소 바람 대표) 김도연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연구원) 최진수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노민혁 (서울발레시어터 공연사업팀장)
폐회	한국연기예술학회장 오진호 (상명대학교)
한국연기예술학회	
개회	한국연기예술학회장 오진호 (상명대학교)
사회	강양은 (청운대)
발제자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신현주 (중원대) 김정균 (남예중, 배우)
토론자	김석범 (수원대) 박성준 (한국영상대) 진승현 (호서대)
폐회	한국연기예술학회장 오진호 (상명대학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사회	정재형 교수 (동국대학교)
발제자	조흥기 ((사)한국코다이협회) 유지선 (고려대학교 박사 수료) 박유신 (서울석관초등학교 교사,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오세준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초빙교수) 이송하 (문화노루 예술교육 매니저/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최영익 (청운대학교) 김광중 (전국예술강사 노동조합)

유관학회 세미나

한국예술교육학회	
개회	학회장 현경실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사회	손지현 교수 (서울교대) 김영미 교수 (계명대) 윤관기 교수 (공주교대)
발제자	조정은 교수 (조선대학교) 고홍규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이미희 교수 (삼육대학교) 이예림, 김혜승 (서정춤세상) 최성희 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연구학회	
개회	김정만 (한국교육연구학회 회장)
사회	오은정(한국교육연구학회 이사, 서울영화초등학교 수석교사)
발제자	오은정 (서울영화초등학교 수석교사) 장은주 (좋은문화병원 신경과학예술교육원 원장) 탁태욱 (아트애플레이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소장) 이영숙 (극단 올리브와 찰콩 대표/연출)
폐회	김정만 (한국교육연구학회 회장)
한국연극교육학회	
개회	서총식 (한국연극교육학회장)
사회	이곤 (청운대학교 연기예술학과교수)
발제자	나진환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교수) 허순자 (서울예술대학교 공연창작학부교수) 서나영 (평택대학교 공연영상콘텐츠학과교수) 양종욱 (배우, 한예중 MFA 졸업)
질의자	조준희 (성결대학교 연극학부교수) 박진태 (여주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교수) 강민호 (중앙대학교 연극학과교수) 김대현 (호서대학교 문화예술학부교수)
한국음악교육공학회	
개회	임원수 (학회장, 영주제일고)
사회	김경태 (학술이사)
발제자	우광혁 (한예중) 조성기 (공주대) 김경화 (서울중흥초) 김기수 (진주교대) 이지영 (상명대) 함수경 · 김영연 (신라대)
좌장	김지연 (배화여대) 권수미 (한국교원대) 박진홍 (동래초) 김경태 (국립국악고) 김미숙 (상명대) 윤문정 (진주교대) 조정은 (조선대)
공연자	김소원 (서울대)
폐회	윤성원 (사무총장)

02 참여하신 분들

유관학회 세미나

한국음악교육학회	
개회	김용희 회장
사회	김기수 (진주교대) 백재연 (서울교대)
발제자	강향숙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문화예술교육 겸임교수) 신은지, 김민제 (서울대학교) 이영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화교육학회	
개회	이은적 (한국문화교육학회 회장, 대구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사회	한수정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최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발제자	김혜경 (경기도교육청) 강주희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최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백미현 (KC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김민화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찬수 (차양초등학교)
토론자	정옥희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김인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박정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현경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전문인력 연수

[서울] 뮤지엄, 문화예술교육으로 다가가기	
협력	한국박물관협회
강사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윤태석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호중훈 (만화애니메이션 예술강사) 구선모 (서상초등학교) 김승익, 박경은,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부산] 아이들의 예술경험을 위한 시각예술 창작 워크숍	
협력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사	루시 힐 (디 아크 어린이문화센터)
[인천] 눈으로 말해요! 아동극과 영유아	
협력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사	로베르토 프라베티 (라 바라카 극단)
[울산] 유아기 예술교육의 마중물	
협력	울산문화재단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사	아쿠아 코아테-테이트 (울프트랩) 텔렌 테리 토드 (울프트랩) 크리스티나 파렐 (울프트랩)

지역별 프로그램

인천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울산	울산문화재단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세종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전 프로그램

박물관주간 교육박람회	
협력	국립중앙박물관
카네기홀 자장가프로젝트	
협력	카네기홀, SEM네트워크

운영

총괄운영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온오프라인 홍보	(주)헤럴드, (주)클롱
홈페이지	(주)노스글로벌
기록촬영	이벤트 픽
행사장 환경조성	엠티오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19.07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협력팀

홈페이지 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week.kr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문의 02-6209-5900
등록번호 KACES-1951-C002
ISBN 978-89-6748-314-2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www.arteweek.kr

